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Vitalization of Marine and Coastal Tourism
in North Korea's East Coast

2018. 11.

윤인주 | 홍장원 |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윤인주 연구총괄, 제1~2장, 제4장 제1절 일부, 제2절, 제5장

연구진

홍장원 제4장 제1절 일부
이정아 제3장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철원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박현선 이화여대 북한학과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2018년은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해로 기록될만하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판문점 연락채널이 재가동되었고 4월 27일에는 11년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위기에 처했을 무렵 5월 25일에는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 북미정상회담을 재추진시켰다.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협력,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한국 답방이 논의되고 있다. 한 해에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났을 뿐 아니라 6월 12일에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차기 회담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일 년 동안 숨 가쁘게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대북제재 완화 이전에는 남북협력 사업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 당원에서는 통일대비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올해는 남북화해의 분위기 속에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며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상했다.

그 일환으로 준비한 여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보고서이다. 관광 사업은 유엔대북제재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추진 된다면 가장 먼저 재가동될 것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다. 마침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동해 일대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관광 사업은 투자 규모를 조절하면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급히 준비해야 할 사업부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까지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비전,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북한·관광 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자문회의 참석은 물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아낌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세 변화를 반영하면서 짧은 연구기간 동안 수고한 윤인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린다.

2018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차

❖ 요약 · i

❖ Executive Summary · vii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 2 장 연구대상지 선정 및 해양관광여건 분석 · 11

제1절 연구대상지 선정	11
1. 북한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거점	11
2.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주요 거점	16
3. 주요 거점을 반영한 연구대상지	18
제2절 연구대상지의 해양관광여건	21
1. 고성	21
2. 통천	25
3. 원산	28
4. 함흥	34
5. 청진	37
6. 나선	41

제 3 장 국외사례 분석 · 47	
제1절 중국	47
1. 관광 부문 개황	47
2. 해양관광지 사례 분석 : 저우산 군도	53
3. 시사점	57
제2절 베트남	59
1. 관광 부문 개황	59
2. 해양관광지 사례 분석 : 다낭	70
3. 시사점	74

제 4 장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검토 · 77	
제1절 조사개요	77
제2절 조사결과	78
1. SWOT분석	78
2. 필요성, 기본방향, 시급한 요소	84
3. 대상지 개발 방향	89
4. 추진시기 및 목표고객	95
5. 준비사항 및 자원조달	99
6. 기대효과 및 종합의견	101

제 5장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구상 · 105	
제1절 기본구상	105
1. 기본방향	105
2. 비전	106
3. 단계적 목표	108
제2절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110
1. 추진전략	110
2. 추진과제	114

제 6 장	결론 · 123
	제1절 요약 123
	제2절 정책제언 125

❖	참고문헌 · 129
----------	-------------------

❖	부록 · 135
----------	-----------------

표 목차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8
〈표 2-1〉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현황	15
〈표 2-2〉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 북한 주요 협력거점 예상(안)	18
〈표 2-3〉 남북한 경제발전 계획 내 동해 주요거점 종합	20
〈표 2-4〉 고성 해양관광자원 요약	23
〈표 2-5〉 통천 해양관광자원 요약	26
〈표 2-6〉 원산 해양관광자원 요약	30
〈표 2-7〉 함흥 해양관광자원 요약	35
〈표 2-8〉 청진 해양관광자원 요약	39
〈표 2-9〉 나선 해양관광자원 요약	42
〈표 2-10〉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 중 관광지개발대상	45
〈표 3-1〉 중국 문화관광부의 주요 업무 영역	48
〈표 3-2〉 중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	49
〈표 3-3〉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50
〈표 3-4〉 중국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	50
〈표 3-5〉 중국 관광산업의 고용 기여도	51
〈표 3-6〉 중국의 관광수입 및 관광지출 현황	51
〈표 3-7〉 중국의 부문별 해양총생산 규모(2017년)	52
〈표 3-8〉 '1핵 1축 2권 다도 연선' 전략의 세부 내용	55
〈표 3-9〉 중국 저우산시 2020년 관광산업 발전 목표	56
〈표 3-10〉 저우산 군도 관광산업의 SWOT 분석	58
〈표 3-11〉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추진 과정	60
〈표 3-12〉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산업구조 변화	63
〈표 3-13〉 2020년 베트남 해양관광 부문 정책 목표	63

〈표 3-14〉 베트남 국내관광객 현황	64
〈표 3-15〉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64
〈표 3-16〉 베트남 관광숙박 시설 현황	65
〈표 3-17〉 베트남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	65
〈표 3-18〉 베트남 관광산업의 고용 기여도	66
〈표 3-19〉 중국의 관광수입 및 관광지출 현황	66
〈표 3-20〉 베트남의 부문별 해양총생산 규모(2015년)	68
〈표 3-21〉 다낭 관광산업의 SWOT 분석	75
〈표 4-1〉 조사개요	78
〈표 5-1〉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의 기본방향	106
〈표 5-2〉 북한 동해 해양관광벨트 구축(안)	107
〈표 5-3〉 북한 동해 해양관광의 단계적 개발 개요도	110
〈표 5-4〉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종류	111
〈표 5-5〉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강점 X 기회 전략	111
〈표 5-6〉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강점 X 위협 전략	112
〈표 5-7〉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약점 X 기회 전략	112
〈표 5-8〉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약점 X 위협 전략	113
〈표 5-9〉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전략 (종합)	113
〈표 5-10〉 거점별 해양관광유형·상품	114
〈표 5-11〉 목표고객별 해양관광유형·상품	119
〈표 5-12〉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120
〈표 6-1〉 주요 정책 제언	12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5
〈그림 2-1〉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위치	14
〈그림 2-2〉 한반도 신경제구상	17
〈그림 2-3〉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종합계획도	19
〈그림 2-4〉 삼일포-해금강	22
〈그림 2-5〉 삼일포-해금강 구역	24
〈그림 2-6〉 시중호 감탕(머드) 치료와 총석정 전경	26
〈그림 2-7〉 시중호관광지구 총계획도	28
〈그림 2-8〉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33
〈그림 2-9〉 함흥 마전해수욕장과 마전서평학교	35
〈그림 2-10〉 해철보 전경	38
〈그림 2-11〉 청진경제개발구 위치	40
〈그림 2-12〉 나선 비파도 및 간이선착장 전경	43
〈그림 3-1〉 중국 저장성과 저우산 군도 지도	53
〈그림 3-2〉 베트남의 주요 관광자원 분포 현황	69
〈그림 3-3〉 다낭 위치	71
〈그림 4-1〉 조사대상자 현황	78
〈그림 4-2〉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강점	79
〈그림 4-3〉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회	80
〈그림 4-4〉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약점	81
〈그림 4-5〉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위험	82
〈그림 4-6〉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타 요소	83
〈그림 4-7〉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 필요성	84
〈그림 4-8〉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본방향	85

〈그림 4-9〉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요소	88
〈그림 4-10〉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88
〈그림 4-11〉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 대상지의 우선순위	90
〈그림 4-12〉 고성 지역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91
〈그림 4-13〉 통천 지역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92
〈그림 4-14〉 원산 지역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93
〈그림 4-15〉 함흥 지역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94
〈그림 4-16〉 청진 지역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94
〈그림 4-17〉 나진 지역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95
〈그림 4-18〉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 추진 예상 시기	96
〈그림 4-19〉 목표고객 국적별 해양관광유형	97
〈그림 4-20〉 해양관광 분야별 목표고객	98
〈그림 4-21〉 한국이 준비할 정책이나 사업	100
〈그림 4-22〉 자원조달 방안	101
〈그림 4-23〉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대효과	101
〈그림 5-1〉 북한 동해 해양관광벨트 구상(안)	107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1.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한반도 연안의 자원 분포와 최근 정세를 반영하여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 본 연구의 1차적인 자료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함. 특히 연구대상지와 국외사례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인터넷자료를 주로 활용함. 연구대상지의 구체적인 정보는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의 자료를 활용함.

- ▶ 2차적으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함. 문헌조사를 기초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로 제시하고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을 설계함.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자문을 통해 연구방향과 방법을 조정함.

2) 연구의 특징

- ▶ 본 연구는 최근의 정세변화, 연구대상지, 국외사례, 전략과 과제 도출 방법 등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됨.
 - 첫째, 남북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특히 경제특구·개발구 및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신경제구상을 연구대상지에 반영함.
 - 둘째, 동해 일대의 접경지역과 주요 거점, 해양관광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동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관광을 주요 협력 분야로 결론지으면서도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시각이었고 관광 관점에서 동해 일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족함.
 - 셋째, 국외사례로 중국과 베트남의 해양관광지를 검토함. 중국, 특히 베트남은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모델로서 언급되고 있어 중국 경제특구 중에서 해양관광을 테마로 한 저우산군도, 베트남에서는 최근 한국인이 많이 찾는 다낭을 사례로 선정함.
 -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구성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로 도출된 SWOT분석에 따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전략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 남북한의 경제개발계획 수요를 종합하면 동해의 주요거점은 고성, 통천, 원산, 함흥, 청진, 나선 등 6군데로 추려짐.
 -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계획」에서 나선, 신의주, 남포, 평양, 함흥, 원산, 김책, 청진을 경제특구로 구상하고 5개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함.
 - 한국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개성, 평양, 남포, 해주, 신의주, 금강산, 원산, 함흥, 단천, 청진, 나선을 주요 거점으로 발표.
- ▶ 북한 동해의 주요 거점은 해안관광자원과 접근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관광, 물류 중심의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임.
 - 고성, 통천, 원산은 긴 해안선을 따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금강산 관광 개발 등으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발표에 따른 개발계획이 나와 있음.
 - 함흥, 청진은 북한에서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마전해수욕장, 해철보 등 해안 자원뿐 아니라 개마고원, 칠보산 등 내륙과 연계한 관광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접근성도 갖추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물류 산업단지 계획이 있고 관광개발 계획은 부각되지 않음.
 - 나선은 대외교류가 활발한 도시로 비파도, 우암물개 등 해안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위치상 북·중·러 협력이 활발하며 북한이 자체적으로 MICE산업 중심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중국(저우산군도)과 베트남(다낭)은 각 나라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로 해양관광을 발전시킴.
 - 중국 저우산군도는 '1핵 1축 2권 다도 연선' 전략에 따라 지역 거점을 연결하고 민박, 휴양, 해산물, 어촌 풍경, 해양문화, 불교수양 체험 등 6대 테마를 설정하여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함.
 - 해양종합개발시험구 지정, 해양관광산업발전 총체 기획, 해양관광 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 관광업 발전 13.5 기획 등을 제시함.
 - 베트남은 '2020 도서·해양·연안 지역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해변 관광지 6개소와 해양관광 활동이 가능한 항만 5개소를 개발하고자 함.
 - 해양관광 전문인력 개발과 해양관광특구 조성, 공무원 역량강화, 지역주민 참여, 정부 유관부처 협력 등도 추진할 예정임.
 - 다낭은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교통접근성 개선과 숙박·관광시설 건립에 외부투자를 활발히 받아들이고 있음.
- ▶ 북한·관광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함.
 - 신변보장, 제도개혁, 관리체계 등이 중요하고 안전관리와 환경관리가 필요하며 남북협력이 특히 필요한 분야는 접근성과 자원마련으로 나타남.
 - 한국이 준비할 정책이나 사업은 남북연계 상품 개발지원과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임.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정지원과 민관협의체 구성·민간투자 유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남.
 - 6개 연구대상지의 개발 우선순위는 원산, 고성, 통천, 나선, 함흥,

청진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관광유형 대부분에서 한국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고 목표관광객에는 주변국의 관광발전 수준과 관심사, 북한 동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매력도 등이 반영됨.

▶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본방향은 핵심 거점 개발 후 연안·국제 연결, 연안 육역 개발 후 해상 관광 개발, 관광업과 1·2·3차 산업의 융복합, 북한 주민과의 혜택 공유, 남북한 연계관광임.
- 비전은 고성-통천-원산-함흥-청진-나진을 잇는 동해 해양관광벨트 구축임
- 5년 내 북한 해안의 일부 개방, 5년 이후의 대규모 투자, 그 사이에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내륙과 연계할 것을 염두에 두고 1단계로는 연안 육역의 관광 개발, 2단계로는 연안 해역의 관광개발, 3단계로는 내륙 연계를 제시함.
- SWOT분석에 따른 추진전략은 7가지로 거점별 자연·사회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해양관광 관련 건설·제조·서비스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관광 원칙 견지, 해양관광 접근성·편의성 제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 목표고객별 해양관광상품 다양화, 주민참여형 해양관광 개발임.
- 추진과제는 (제도) 남북해양관광개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계획수립·의사결정 총괄 기구 마련, 그 산하의 해양관광인프라·산업개발위원회와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발전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확립, (사업) 해양관광 공동조사·연구와 목표고객별 해양관광 패키지 실시, 북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북한 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북한해양관광

자원·지속가능관광 가이드라인 개발 등임. (기금, 기구) 이를 위해 해양관광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북한 진출기업 용투자 및 북한 주민 대상 소액금융사업을 실시하고 해양관광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 (법·제도)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객 신변보장과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이 필요함
- ▶ (조사·협의) 해양관광자원 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해양관광활동을 위한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남북한 협의가 필요함
- ▶ (민간지원) 남북연계 상품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해양수산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해당 분야 연구기관의 수요조사 및 업무협약 시 결과 공유 및 제언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발표된 동해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추진 가능한 해양관광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제시
- ▶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북한 해양관광 개발 기본방향 제시
- ▶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사업 및 정책 수요 발굴에 대응

EXECUTIVE SUMMARY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Marine Tourism in the East Sea of North Korea

1. Purpose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marine tourism in the East Sea of North Korea reflecting recent chang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resource distribution on its coast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 ▶ Preliminary data for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 particular, subject areas and foreign cases were analyzed with preceding studies, media reports and data on the internet. The study utilizes the data from the portal of North Korean Human

Geography (<http://www.cybernk.net/>) for specific information on subject areas.

- ▶ Next, the study carried out a survey on experts. Having collected relevant informat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it designed the survey to draw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tasks. During this process, the direction and methods of the study were modified by consultation with experts.

2) Features

- ▶ The present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ceding studies in terms of recent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subject areas, foreign cases and the method of drawing strategies and tasks.
 - First, since the two Koreas has built the mood for conversation, subject areas for the study include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 special economic zones and special development zones and the New Economic Map presen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 Second, comprehensive review was conducted on border areas, major bases and marine tourism attractions in the East Sea. Preceding studies on the subject of the East Sea conclude tourism as a major cooperation area. However, it only pres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industry or economy as a whole, but short of a tourism perspective.
 - Third, the study reviewed marine tourism attractions in China and Vietnam as foreign cases. China and particularly Vietnam are mentioned as a model for opening North Korea's economy.

Therefore, the study selected Zhoushan Archipelago, which is a major destination for marine tourism under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and Da Nang, a popular spot for Korean tourists.

- Fourth,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tasks were designed based on a survey on the opinions of experts. Following SWOT analysis drawn by the survey on experts, it present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required tasks.

3. Results

1) Summary

- ▶ In summarizing the demands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for South and North Korea, major bases in the East Sea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six locations: Goseong, Tongcheon, Wonsan, Hamhung, Chungjin and Rasun.
- Having conceived to establish special economic zones in Rasun, Sinuiju, Nampo, Pyeongyang, Hamhung, Wonsan, Kimchaek, and Chungjin, North Korea announced five special economic zones and 22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its 10-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 South Korea unveiled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nouncing Gaesung, Pyeongyang, Nampo, Haeju, Sinuij, Mt. Kumgang, Wonsan, Hamhung, Tanchon, Chungjin, and Rason as major bases for the plan.
- ▶ Major bases located along the East Sea of North Korea have

abundant resources for marine tourism and accessibility, while its development plans centering on tourism and logistics have already presented.

- In particular, Goseong, Tongcheon and Wonsan are located along the long shorelines of the East Sea with abundant tourism resources and easy accessibility due to the development of Mt. Kumgang tourism. The development plan for this region is already presented following the statement of the 'Wonsan-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t Zone'.
- As representative industrial cities, Hamhung and Chungjin have abundant marine resources such as Majeon Beach and Sea Chilbo. These areas have accessibility and potential for tourism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inland areas such as the Kaema Plateau and Mt. Chilbo in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 has not highlighted a plan for developing tourism, only to suggest a plan for logistics industry complex
- While enjoying brisk foreign exchange, Rason has ample marine resources such as Bipado and Uam Seal, actively engaging in cooperation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anks to its geographical location. Thus, North Korea has established its own tourism development plan centering on MICE industry.
- ▶ China (Zhoushan Archipelago) and Vietnam (Da Nang) have developed marine tourism driven by the governments under the development plans befitting to the lo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nd region.
- Zhoushan Archipelago has connected regional bases following the strategy called 'One Core, One Pillar, Two Zones, Multiple

islands along the lines', establishing convenienc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For this purpose, it designated six themes including accommodation, resort, seafood, scenery of fishing villages, marine culture and experience of Buddhist culture.

- China has designated Zhoushan as a pilot city for national marine economic development while presenting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Industry, Medium- to Long-term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Industry and the 13th 5 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 Having established the 'Strategy on Vietnam's tourism development until 2020, vision to 2030', Vietnam aims to develop six sites of marine tourism attractions as well as six ports which allow marine tourism activities.
- The country is expected to carry out the following activities: development of workers specializing in marine tourism, capacity building of public officials,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highly committed to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Following the government's intention, Da Nang is actively improving its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embracing foreign investment to build accommodation and tourism facilities.
- ▶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experts on North Korea as well as tourism to produce vitalization measures of marine tourism in the East Sea of North Korea.
- According to the result, important factors include securing

personal safety, system reform and management system, while safety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necessary. In addition, inter-Korean cooperation is particularly essential for accessibility and securing funds.

-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policies and projects, for instance, th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products and the designation of marine tourism zone connecting South and North Korea. Also, it is highly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finance of Inter-Korean cooperative funds and organize a public-private consultation body and attract private investment.
- The priority for the development of six subject areas follows the order of Wonsan, Gosung, Tongcheon, Rason, Hamhung and Chingjin.
- Most type of marine tourism is expected to witness a high demand of people from South Korea. The estimation of target tourists reflects the level of tourism development in neighboring countries, their interests and relative attractiveness on the East Sea of North Korea.
- ▶ This study suggests a roadmap for vitalizing marine tourism in the East Sea of North Korea as follows:
 - The basic directions are to (a) develop core bases first, and then connect coastal and international areas, (b) develop coastal lands and then develop marine tourism, (c) integrate and converge tourism with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d) share the benefits with North Korean residents, and (e) promote tourism connecting South and North Korea.

- The vision is to establish the 'East Sea Marine Tourism Belt' linking Goseong, Tongcheon, Wonsan, Hamhung, Chungjin and Rajin.
- The plan envisages the following scenarios including a partial opening of North Korean seas in 5 years, a large investment after 5 years and connecting with inlands if certain conditions are set. Given these situations in mind,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coastal lands as the first step,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coastal sea areas as the second step. Finally, it presents connecting with inlands areas as the third step.
- The study presents seven implementation strategies based on SWOT analysis as follows: (a) developing tourism taking advantage of natural and social resources per each base, (b) fostering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relevant to marine tourism, (c) keeping the principal of sustainable tourism and ecotourism, (d) improving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marine tourism, (e) developing marine tourism in connection with regional development, (f) diversifying marine tourism projects per target customers and (g) developing marine tourism that encourages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 The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category are as follows:
 -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set up a governing body for planning and decision-mak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Korean Marine Tourism Development Committee. Also, the governance should be solidified by organizing sub-committees including the Marine Tourism Infrastructure

and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and the Sustainable Marine Tourism Development Committee.

(Projects) Joint study and research on marine tourism should be conducted while fam trips of marine tourism per target customers should be carried ou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North Korea's small enterprisers for starting their businesses and capacity-building of local residents. Also, developing a guideline for North Korea's marine tourism resources and sustainable tourism should be carried out.

(Fund and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Marine Tourism Development Fund, offering loans and investments to the companies entering into North Korea and providing micro finance to North Korean residents. In addition, HR Development Center for Marine Tourism should be established.

2) Policy suggestion and relevant activities

- ▶ (Laws and systems) The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in the East Sea of North Korea requires securing personal safety of tourists and designation of Marine Tourism Zone connecting South with North Korea
- ▶ (Survey and consulta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urvey on marine tourism resources as well as on project feasibility while inter-Korean discussion is essential to environmental and safety management of marine tourism activities
- ▶ (Private support) Support for developing tourism products

connecting South and North Korea is necessar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attracting investment and management

- ▶ When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research institutes conduct a survey for estimating demand and discuss concerning businesses, the results should be shared and suggestions should be made.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With regard to the East Sea Special Tourist Zone announced i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September 2018, this study presents implementations strategies and tasks for marine tourism that can be taken into action
- ▶ The study suggests a basic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in North Korea presented by relevant experts
- ▶ This study responds to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contributing to the discovery of policy demand.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남북관계는 정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¹⁾ 첫째, 정세 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국면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화국면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둘째, 정책 변화는 이러한 정세변화와 연동된 것인데 북한 붕괴에 대비한 통일대비 정책이 남북협력·북한개발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그러나 종전과 달리 한국 정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 민간 투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판단하고 경제개발에 집중하고자 하지만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

1) 김민관,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협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남북 개발협력』 자료집(2018년 5월 15일), p. 27.

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방향 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발표한 경제특구·개발구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201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중국의 다층적인 경제특구 전략을 북한 실정에 맞게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온성섬·신평 관광개발구를 비롯해 2014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2015년 무봉국제관광특구 등 관광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특구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 중 하나는 관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표한 경제특구·개발구는 대부분 연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 접경지역에 있다. 중국처럼 연안 지역의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향후에 내륙으로 확대해나갈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 대비 관점에서도 북한 연안 지역의 경제발전은 주목된다. 신경제구상이 제시하는 동서해안 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물류·에너지·자원의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해안은 에너지·자원뿐 아니라 관광자원의 활용방안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러한 구상의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연안의 자원 분포와 최근 정세를 반영하여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북한 연안에 해양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개발 초기 단계에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지가 조성될 것이고 관광활동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은 마라톤, 골프, 낚시, 서핑 등 스포츠를 비롯해 특정 분야의 마니아(북한에서는 애호가로 표현)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북한 내 제한된 관광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동해안 자연환경을 활용한 낚시, 서핑, 수중레저, 어촌체험, 생태관광 등에 잠재력이 존재한다.

둘째, 이러한 형태의 해양관광은 북한에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므로 인적·기술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이 국제적인 규범에 노출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관광활동은 환경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경관 보호와 지역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관광산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문화자원을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기초적인 시설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핑, 수중레저, 생태관광 등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와 지역 주민과의 접촉점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연관 산업 발전을 통해 북한 연안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음식·숙박업 정도이겠지만 어촌체험이 확대된 어촌관광과 수산물 판매, 해양스포츠 관련 제품의 생산·수리·판매를 비롯해 수중레저시설·수족관·크루즈부두·마리나 등의 건설·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크루즈부두와 마리나가 개발되면 레저선박 관련 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도 기대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연구대상지 선정 및 해양관광여건 분석, 관련 국외사례 분석,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활성화 방안 검토와 구상이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남북한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의 해양관광여건을 분석한다. 3장은 국외사례로 중국과 베트남의 관광 부문 개황을 살펴보고 저우산군도와 다낭의 사례를 검토한다. 4장은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관광 분야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장은 설문조사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구상을 제시한다.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SWOT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추진과제를 구성한다.

연구범위는 내용적으로 해양관광(marine tourism)과 연안관광(coastal tourism)을 포괄한다. 연안 해역에 의존하는 활동 중심의 해양관광과 그보다 연안 육역에 의지하는 연안관광을 대상으로 한다.²⁾ 시간적으로는 관련 자료의 경우 연구기간인 2018년 현재이며 해양관광 활성화 구상은 통일 이후까지 상정한다. 공간적으로는 북한 측 수요와 한국 측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했다. 북한 측 수요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³⁾ 및 경제특구·개발구 등

2)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 해역은 바닷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 바다를 말하고 연안 육역은 육지 쪽 경계로부터 500미터(항만, 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km) 범위 내의 육지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 레저보트의 원거리 항해나 크루즈선 운항을 제외하면 해양관광 대부분은 연안관리법상의 연안 육해역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3) 2011년 공개, 8대 경제특구(라선, 신의주, 남포, 평양, 함흥, 원산, 김책, 청진), 신의주~평양~남포로 이어지는 서남권과 나선~청진~김책의 동북 방면을 양대 축으로 한 개발 계획으로 2020년까지 교통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에너지 개발 등에 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박순빈, “한반도 넘어 동북아 경제지도 바꾼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8210.html(검색일: 2018. 10. 21.); 조봉현, “북한 경제개발 10주년 계획 채택...개혁, 개방이 관건”, 『통일한국』 2011년 3월호, <http://unikorea21.com/?p=10234>(검색일: 2018. 10. 21.)

에 반영된 지역을 말하고 한국 측 수요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반영된 거점 지역을 말한다. 단, 한꺼번에 여러 지역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동해안을 검토하고 다음 연구에서 서해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한다. 특히 연구대상지와 국외사례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인터넷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연구대상지의 구체적인 정보는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도 활용했다. 그다음은 주로 설문조사에 의존했다. 문헌조사를 기초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로 제시하고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을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방향과 방법을 조정했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북한 전역이 아닌 동해안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토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원배 외(2005)⁴⁾, 김영봉 외(2008)⁵⁾, 이상준 외(2012)⁶⁾ 등이다. 상기 선행연구들은 동해안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각각 환동해, 동해 접경지역, 동해 주요 거점 등 다른 초점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 시기, 남북교류 중단 시기, 남북 관계 교착 시기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비교할 만하다.

김원배 외(2005)는 남북교류 활성화 시기에 환동해권 경제권 형성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환동해권 교류와 지방간 협력 등을 살펴보면서 환동해권의 발전 여건과 협력 가능 분야를 검토했다. 주요 분야는 물류·수송, 관광, 농수산, 에너지이다. 이 분야에 대한 한국 동해안 지역의 전략과 과제를 제안했다. 각국 연안지역 전문가 자문을 받고 우리나라 동해안에 입지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일본, 러시아,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물류·수송, 관광, 농수산, 에너지 분야에서 각 지역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는 점, 해양환경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이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한 것을 한계로 명시했다.

이 연구는 한국 동해안 지역의 당면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고 교역확대와 관광객유치를 주요 관심사항으로 접근했다. 단기적으

4) 김원배 외,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국토연구원, 2005.

5) 김영봉 외,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2008.

6) 이상준 외,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국토연구원, 2012.

로는 원산-강릉 도로 확충과 환동해권 자전거 도로, 동계스포츠 리그 개최, 환동해권 단체관광객 무비자 추진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동해권 직항 노선 확충, 발해권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 환동해권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을 제시했다. 지방 간 협력과제로는 환동해 항만 간 페리노선 확충과 연안 환경 보전 행동강령 공동 작성도 제안했다.⁷⁾

김영봉 외(2008)는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여건, 육상·해상 교통망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주목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수산업 및 지하자원의 공동 발굴,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중에서도 고성군 현내면 지역을 교류협력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분야별로는 관광, 수산·해운, 환경생태, 생활권·자원 부문의 협력사업을 제시했다. AHP분석에서 관광 부문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사업은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문화유적지 등 주요관광지 탐사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리조트 및 레저, 동북아 해상 및 항공 연계관광, 동해연안 주요 포구 및 도서 간 유람선 운항, 해양생태계 체험도 제시했다.

이상준 외(2012)는 북한의 주요 거점 도시 중 동해안권에서 나선, 청진, 원산을 선정하여 도시 실태와 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과제를 제시했다. 거시적 측면에서 나선과 원산은 수출형 경공업과 물류·관광 분야에 강점이 있고 청진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이지만 배후에 칠보산이 있어 청진-칠보산 관광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반도 서해안권의 서울과 평양이 미래 한반도의 머

7) 김원배 외, 전게서, pp. 122~125.

리와 심장 역할을 한다면 동해안권의 도시는 교통·에너지·인프라의 중심축으로서 날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해양관광에 초점을 둔 연구인 윤인주·정유석(2015)은 북한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일별하고 주요 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 동서해안 16개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검토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고성, 남포, 원산이 공동으로 가장 높고 그 뒤는 나선, 명천, 통천 등이었다. 고성, 원산, 통천 일대의 해양관광자원에 주목하고 이 일대의 해상 유람과 해양레저 시설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남포와 나선은 주요 항만을 보유한 물류수송지로서 산업적 입지를 살리고 관광위락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구 분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환동해	· 과제명 :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 연구자(년도) : 김원배 외 (2005) · 연구목적 : 환동해권 경제권 형성을 위한 협력 전략 도출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기업대상) 현지워크숍	· 환동해권의 교류 현황 · 환동해권 지방 간 협력 실태 · 환동해권 발전 여건과 협력 가능분야 · 주요 분야별 협력 가능성 분석 (물류·수송, 관광, 농수산, 에너지) · 한국 동해안지역의 전략과 과제
	동해 접경지역	· 과제명 :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 방안 · 연구자(년도) : 김영봉 외 (2008) · 연구목적 :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 마련	문헌조사 SWOT분석 설문조사 (주민, 공무원, 전문가) AHP 파급효과분석	· 동해안 남북접경지역의 위상 ·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 교류 협력 여건 · 접경지역 사례(독일, 중국·대만, 예멘) · 협력사업 추진방안 · 파급효과 분석 및 제도적 지원 방안

구 분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동해	· 과제명 :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 연구자(년도) : 이상준 외 (2012) · 연구목적 : 동해안권의 핵심 거점(나선, 청진, 원산)을 대상으로 개발과제 제시	문헌조사 GIS분석 면접조사 (북한이탈주민) 사례분석	· 도시개발잠재력 분석 방법론 · 나선, 청진, 원산의 실태분석 · 나선, 청진, 원산의 개발잠재력 분석 · 나선, 청진, 원산의 향후 도시개발 과제 · 나선, 청진, 원산의 중단기 남북 협력 과제
	북한 해양관광	· 과제명 :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 윤인주·정유석(2015) · 연구목적 :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지 개발방향 및 우선순위 제시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AHP분석 전문가자문	· 해양관광의 개념과 특성 · 북한의 관광개발 환경 · 북한의 관광개발 현황 ·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자원평가 · 주요 해양관광지 개발방향
본 연구		-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한국 신경제구상 반영 - 북한 동해안 일대의 관광거점 - 북한이 벤치마킹할 중국, 베트남 사례 - 설문조사에 기초한 전략·과제 도출 - 해양관광에 특화된 구체적인 사업 제시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사례분석 SWOT분석 전문가자문	· 연구대상지 선정 및 현황 (고성, 통천, 원산, 함흥, 청진, 나선) · 국외사례(중국 저우산 군도, 베트남 다낭) · 전문가 의견조사 · 기본구상, 추진전략, 추진과제

본 연구는 최근의 정세변화, 연구대상지, 국외사례, 전략과 과제 도출 방법 등에서 선행연구와 다소 차별화된다.

첫째,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연속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하는 등의 정세변화를 반영했다. 남북한의 계획에 대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특히 경제특구·개발구와 문제

인 정부가 제시하는 신경제구상을 연구대상지에 반영하기로 했다.

둘째, 동해 일대의 접경지역과 주요 거점, 해양관광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동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관광을 주요 협력 분야로 결론지으면서도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시각이었고 관광 관점에서 동해 일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관광, 그중에서도 해양관광 관점에서 북한 동해 일대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다.

셋째, 국외사례로 중국과 베트남의 해양관광지를 검토했다. 중국, 특히 베트남은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모델로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북한 실정에 맞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내외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나마 중국의 경제특구 중에서는 해양관광을 테마로 한 저우산군도, 베트남에서는 최근 한국인이 많이 찾는 다낭을 사례로 선정했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구성한다. 연구방법으로 SWOT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시기별로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그 결과를 협력사업의 추진방안까지 연결해보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SWOT분석에 따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전략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른 거점별·목표고객별 해양관광 개발도 제안한다.

제 2 장

연구대상지 선정 및 해양관광여건 분석

제1절 연구대상지 선정

1. 북한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거점

1)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2010~2020)⁸⁾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산업, 인프라, 투자 측면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12개 개발 분야를 발표한 바 있다. 산업 측면은 자원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고 인프라 측면은 철도·도로·항만 등 SOC개발, 투자측면은 금융 및 외자유치이다. 12개 분야는 농업 개발, 8대 경제특구 개발, 석유에너지 개발, 원유가공(2천만t), 전력 생산(3천만 KW), 지하자원 개발, 고속도로 건설(3천 km), 철도 현대화(2,600km), 공항·항만 건

8) 조선중앙통신이 2011년 1월에 발표. 조봉현, “북한 경제개발 10주년 계획 채택... 개혁, 개방이 관건”, 「통일한국」, 2011년 3월호. <http://unikorea21.com/?p=10234>(검색일: 2018.10.21)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설, 도시 개발 및 건설, 국가개발은행 설립, 제철 생산(2천만t)이다.

이 중 8대 경제특구는 나선, 신의주, 남포, 평양, 함흥, 원산, 김책, 청진으로 대부분 항구도시이며 동해안이 5개, 서해안이 3개를 차지한다. 8대 경제특구는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의 개발 방향인 산업, 인프라, 투자 측면이 모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한 동해안, 서해안 별로 해안선을 따라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곳들이다. 2020년이 다가오지만 북한은 이 계획으로 목표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향후 남북협력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이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역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2)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경제특구·개발구는 북한이 대외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경제특구에는 다양한 유형과 정의가 존재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와 경제개발구(Economic Development Zone: EDZ)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SEZ)는 “특별한 경제적 활동이 일련의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한정된 지역으로 그 국가의 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⁹⁾ 경제개발구는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북한은 경제개발구가 “다른 나라의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별하여 투자와 기업의 생산, 봉사, 과학연구 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특정한 지역”이

9) USAID, “Special Economic Zone Benchmarking and Policy Action Plan”, May 31, 2007, p. 23; 원동욱·안병민,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2008, p. 21에서 재인용.

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현재 북한에는 5개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있다. 경제특구는 특구마다 해당하는 개별법이 적용되며 그에 따른 임대료와 세금의 감면 등의 특혜가 부여된다. 북한이 가장 먼저 문을 연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해 중국과 협력을 염두에 둔 ‘신의주국제경제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한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된 ‘개성공업지구’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가 있다.

경제개발구는 각 지역이 우위를 가진 요소에 특화된 형태로 각 지방정부가 계획을 제출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개발구(6개), 공업개발구(4개), 관광특구·개발구(4개), 농업개발구(3개), 수출가공구(3개) 등으로 나뉘고 첨단기술개발구(1개)와 국제녹색시범구(1개)도 있다. 경제개발구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무봉국제관광특구는 중앙급이고 나머지는 지방급이다. 중앙급은 각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정된 지역과 해당 지역의 산업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개발구 중 관광특구는 원산-금강산을 제외하면 모두 내륙에 위치한다. 온성섬, 무봉, 청수는 모두 북·중 접경지역이고 신평은 북한 내륙 한가운데 위치하여 이례적인 경우이다. 관광 관점에서 본다면, 특구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개발 잠재력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안배 전략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10) 리일철, “경제개발구의 개념과 주요류형”, 『경제연구』, 누계 제167호, 2015, 42-43; 강원도, 「국제레저관광자유지대 조성 추진전략 수립 연구」, 2016, p. 27 에서 재인용.

〈그림 2-1〉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위치



자료: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4>(검색일: 2018.10.21.)

경제개발구가 기존 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북한 기업의 진출과 외국 자본의 연계이다.¹¹⁾ 경제개발구법 제20조에 따르면 경제개발구 밖의 북한 기업이 경제개발구 내에 진출할 수 있다. 경제개발구 기업 창설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경제개발구 내의 외국 자본이 경제개발

11)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4> (검색일: 2018.10.21.)

구 외부의 북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다. 이는 경제개발구 밖에 있는 기업이 위탁가공을 맡는 등 생산 공정의 분업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하겠다.

〈표 2-1〉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현황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종류	위치	지정연도	종류(개수)	위치	지정연도
경제	나선	1991	경제(5)	혜산, 만포, 청진, 압록강	2013
	황금평·위화도	2010		강남	2017
공업	개성	2002	공업(4)	우원, 현동, 흥남	2013
				청남	2014
관광	금강산 (원산-금강산)	2002 (2014)	관광(4)	신평, 온성	2013
				청수	2014
				문봉	2015
특별 행정	신의주	2002	수출(3)	송림, 와우도	2013
				진도	2014
			농업(3)	북청, 어랑	2013
				숙천	2014
			첨단기술(1)	은정	2014
			녹색시범(1)	강령	2014

주: 경제개발구 중 중앙급은 밑줄 표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대외여건의 한계 상 경제특구·개발구의 추진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북한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진전을 이루면 가장 먼저 외부의 투자와 협력을 요청할 곳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와 외부 투자자가 우선순위를 두는 지역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특구·개발구는 북한의 수요를 반영하는 주요 후보지로 가장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주요 거점¹²⁾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경제를 묶어 북방경제로 진출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상의 양대 축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이다. ‘하나의 시장’은 남북 경제통합의 과정이자 수단으로서 기업의 자유롭고 안전한 경영활동, 한반도 경제권의 연결, 남북주민의 생활경제공동체, 동북아시아 시장의 통합 등을 의미한다. ‘3대 경제협력벨트’는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망 구축과 경제적 소통·연계를 말한다. 산업·물류·교통 중심의 환황해권 협력벨트, 에너지·자원·관광 중심의 환동해권 협력벨트, 생태·환경·평화관광 중심의 접경지역 협력벨트로 구성된다.

협력벨트는 주요 지역을 묶어 협력거점으로 보고 남북한을 연계시킨다. 환황해 경제협력벨트(서해안 물류·산업벨트)는 개성·해주 경제권, 평양·남포 경제권, 신의주 경제권을 협력거점으로 보고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지역경제 발전의 통로를 중국 대륙까지 이어가는 계획이다.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는 나선·청진 경제권, 원산·함흥 경제권, 단천 경제권을 협력거점으로 보고 강릉·속초와 원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의 지역경제 발전의 통로를 러시아 극동까지 확대하는 계획이다. 접경지역 평화벨트(DMZ 환경·관광벨트)는 DMZ와 민통선 인근 지역의 생태·환경 가치를 보전하면서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12) 임강택,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KINU 온라인 시리즈」, CO-20, 2018년 5월 8일
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그림 2-2〉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 그 내용이 제공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협력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담긴 내용을 북한이 얼마나 수용하고 북한의 수요와 조율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주요 협력거점 중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과 중첩되는 곳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상호 수요가 만나는 곳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중점 추진분야는 현재 각 부처별로 의견을 모아 준비 중이다.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최종 사업안에 따라서, 혹은 이후에도 남북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협력거점은 계속해서 추가·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건에서 언급된 지역과 관련 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표 2-2〉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 북한 주요 협력거점 예상(안)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물류·산업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지역	키워드	지역	키워드	지역	키워드
금강산	관광	개성	산업	공유하천	환경
원산	관광	평양	산업	DMZ	관광
함흥	관광·에너지	남포	물류		
단천	자원	해주	물류		
청진	물류	신의주	물류		
나선	물류				

3. 주요 거점을 반영한 연구대상지

이상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주요 협력거점을 비롯해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8대 경제특구 및 27개 경제특구·개발구를 종합 정리하면, 동해의 거점은 금강산, 원산, 함흥, 단천·김책, 청진, 나선 등 크게 6군데로 모아진다. 이 6개 지역은 남북한의 수요가 모두 반영된 곳으로 향후 남북 협력사업 추진 시 양측에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남북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국제사회 및 민간의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력, 상하수도, 통신, 교통 등 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구축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해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도 이 지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왕래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상기 거점을 반영하되 관광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연구대상지를 약간 조정하고자 한다.

첫째, 금강산지구로 통칭되는 지역은 사실상 그 범위가 넓다.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¹³⁾ 종합계획도는 원산지구와 금강산지구를 구분하고 있다.¹⁴⁾ 그중 금강산지구는 연안에 위치한 고성과 통천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강산지구를 고성과 통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3〉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종합계획도



자료: 육동한 외, “북강원도의 중심, 원산의 재조명”, 「정책메모」 제700호, 강원연구원, 2018년 7월 24일, p. 6.

- 13)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총 계획 수립, 11월에 비준한 ‘원산-금강산지구 총 계획’ 발표 시에는 원산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고성 포함)로 구분, 2014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8호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선포, 2015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총계획’을 발표하면서는 원산,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 금강산 등 6개 지구로 구분
- 14)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북한투자전략팀, 「한반도 ‘CVIP’의 시대로」, 2018년 6월 12일, p. 115.

둘째, 단천-김책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관광자원은 많지 않다.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는 함흥과 단천 사이의 ‘북청’(농업)에 지정되어 있다. 관광측면에서는 오히려 북청에서 단천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이원’이라는 지역이 해수욕장과 명승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북한 양측의 전체적인 경제개발계획에서 이 지역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함흥 이북부터 청진 이남까지는 관광 측면의 거점이 빠져 있는 셈이다. 향후 함흥이 개발된 후 북쪽으로 확장하거나 청진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명천군의 칠보산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청진 이남으로 관광권이 확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로서는 남북 양측의 전체적인 경제개발 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관광 측면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므로 연구대상지는 고성, 통천, 원산, 함흥, 청진, 나선 등 6군데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2-3〉 남북한 경제발전 계획 내 동해 주요거점 종합

주체	한국	북한		연구대상지
계획	한반도 신경제구상	10개년 계획	경제특구·개발구	해양관광거점
지역	금강산	-	금강산	고성
				통천
	원산	원산	원산, 현동	원산
	함흥	함흥	흥남	함흥
	-	-	북청	-
	단천	김책	-	-
	청진	청진	청진, 어랑	청진
	나선	나선	나선	나선

제2절 연구대상지의 해양관광여건

1. 고성¹⁵⁾

1) 개황

고성은 금강산과 긴 해안선(약90km)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동서 28km, 남북 55.5km이고 총면적은 인근의 섬을 포함해 약 860km²에 달한다. 형제섬, 삼섬을 비롯해 작은 섬이 28개 정도 있다. 서북부에 통천군, 서부에 금강군, 동남부는 한국의 고성군과 접해 있다.

북한 동해안에서 제일 길고 바닷가 지형이 복잡한 편이다. 해식해안으로 형성된 해금강은 화강암절리를 따라 기묘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연안에는 만의 입구가 막혀 형성된 삼일포, 영랑호, 감호 등의 석호가 있다.

해양성 기후가 지배적이고 연평균 기온은 11℃, 1월 평균 -2.1℃, 8월 평균 23.6℃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1,580mm로 북한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 하나이다. 바람은 남동풍이 우세하고 연평균 풍속은 2.9m/s이다.

식료품·일용품공업, 수산업이 주를 이루고 인구는 6만여 명이다.¹⁶⁾

2) 해양관광자원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금강산이고 해양관광자원으로는 해금강을 꼽을 수 있다. 해금강은 고성군 수원단에서부터 영랑호, 감

15)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검색일: 2018.10.23.)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16)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SubCont
(검색일: 2018.10.23).

호, 화진포까지 이어지는 외금강 동쪽의 절경이다. 바다의 금강, 금강의 바다풍경을 말한다. 북한에서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며 남북관광 당시 하루 한 번 관광 시간에만 공개해왔다. 당시 해금강 코스는 해만물상 주변에만 한정되고 사진촬영도 금지됐다. 해금강에서 육지 안쪽으로 6km 가량 들어가는 삼일포는 주변에 오염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석호의 모습을 띠고 있어 금강산 일대 생태계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¹⁷⁾ 금강산관광 중 외금강과 내금강은 등산을 많이 하는 편이나 삼일포-해금강 코스는 편안한 유람을 즐기는 곳이다.

〈그림 2-4〉 삼일포-해금강



자료: (오른쪽)삼일포, (왼쪽)해금강, <https://www.leportsline.com/2-c8wn> (검색일: 2018.10.23.).

고성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금강산 해수욕장은 남북관광 시기에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¹⁸⁾ 모래 알갱이가 작고 수심이 낮아 해변에서 50m를 나가도 성인 허리가 잠길 정도이다. 당시 북한은 낚시와 조개 채취를 허락했지만 해수욕장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에는 개인용 텐트를 가지고 야영도 가능했다고 한다.

17) 유성재, “북한 해금강·삼일포 '비경' 첫 공개”,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Page.do?news_id=N0311670893(검색일: 2018.10.23).

18) 신호철, “문 열린 금강산 해수욕장 '빈 바닷가'”, 「시사저널」, 2003년 8월 5일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85716>(검색일: 2018.10.23).

〈표 2-4〉 고성 해양관광자원 요약

구분	자연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사회문화자원
고성	■ 해수욕장 - 금강산	■ 스포츠/체육시설 - 수상레저시설 (제트스키 등)	■ 항만/어항 - 고성항 - 고성수산물사업소	■ 특산물 - 문어, 섭조개털게
	■ 경승지 - 해금강 - 삼일포 - 형제섬 - 솔섬	■ 유원지 - 전망대, 휴양림		
	■ 해양동식물 - 큰고니	■ 해양휴양소 - 금강산 휴양소 - 금강산 온천		

자료: 윤인주·정유석,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 113; 윤인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 276 참고로 재구성.

3) 접근성

고성은 원산과 106km, 통천과 50km 떨어져 있다. 해안선을 따라 도로와 철도가 운행하고 해상 운송도 가능하다.

원산-금강산 간 고속도로가 통과하여 원산까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온정-금강, 봉화-월비산 간에 도로가 있고 원산, 통천, 금강산, 해금강 간에 정기버스가 운행된다.

철도는 금강산청년선이 있다. 안변-감호(옛 외금강역) 구간이 약 100km로 2시간가량 소요되며 통천, 고성 등을 경유한다.

고성항(장전항)에는 현대그룹이 건설한 전용부두가 있어 3만 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속초항과 고성항을 오가는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가 운영됐다. 북한은 2011년 경 고성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3만 톤급 여객선을 유치하고자 했다. 2011년에 만경봉92호가 총 4차례에 걸쳐 400여 명을 수송하며 나선-금강산 해로관광에 투입된 바 있다.

4) 개발계획¹⁹⁾

고성은 북한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총계획 중 2단계 (2018~2025년)인 금강산지구 개발에 포함되어 있다. 금강산지구는 내금강, 외금강, 삼일포~해금강, 통천, 석왕사 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성 지역의 해양관광은 삼일포~해금강 지구에 해당한다. 유람선, 해수욕, 바다낚시 등이 예상된다. 금강산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지구에는 4,700여 실의 숙박시설과 삼일포자연공원, 해금강자연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민속거리, 민속무도장, 수족관, 각종 오락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림 2-5〉 삼일포-해금강 구역



자료: <http://jeonsay.tistory.com/entry/2005년-7월의-금강산-여행기-⑥?category=626644>
(검색일: 2018.10.23).

19)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 명의로 발표된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 내용 근거로 작성함.

2. 통천²⁰⁾

1) 개황

통천은 동서 47km, 남북 17km이고 총면적은 약 600km²에 달한다. 남부는 고성군·금강군, 서남부는 창도군, 서부는 안변군·회양군에 접해 있다. 사도, 등덕도, 천도 등의 섬도 있다. 통천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 당시 교통의 중심지로 사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고을이라는 뜻이다.

해양성 기후의 특성이 뚜렷하고 연평균 기온은 11℃, 1월 평균 -2.4℃, 8월 평균 23.7℃이다. 연평균 일조율은 52%,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21mm, 연평균 상대습도는 67%이다. 바람은 남서풍이 우세하고 연평균 풍속은 3.1m/s이다.

산업은 전력·석탄공업과 수산업·농업이 주를 이룬다. 선박수리와 소형 조선업도 발달되어 있다. 인구는 약 9만여 명이다.²¹⁾

2) 해양관광자원

통천은 원산시에서 남쪽으로 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관동8경의 하나로 불리는 총석정, 자연호수인 동정호와 시중호가 있고 시중호해수욕장이 있다. 총 4개의 자연호수구역과 6개의 백사장, 9개의 관광명소가 있다. 특히 시중호에는 신경통과 소대장염 치료에 특효가 있는 328여 만t의 감탕(머드)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지구에는 1천여 실의 숙박시설과 치료시설, 상점, 식당 등이 있다.²²⁾

20)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검색일: 2018.10.23)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21)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SubCont (검색일: 2018.10.23.).

〈그림 2-6〉 시중호 감탕(머드) 치료와 총석정 전경



자료: (왼쪽)[http://www.cybernk.net/search/Searchlist.aspx?litSelType=99&litword=%EC%8B%9C%EC%A4%91%ED%98%B8+%EA%B0%90%ED%83%95&ID=SYSTEM](http://www.cybernk.net/search/Searchlist.aspx?litSelType=99&litword=%EC%8B%9C%EC%A4%91%ED%98%B8+%EA%B0%90%ED%83%95&ID=SYSTEM;); (오른쪽)[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21n&artid=4517754&categoryid=506598®dt=20150815133417\(%EA%B2%80%EC%83%89%EC%9D%BC:%202017%EB%85%84%207%EC%9B%94%2013%EC%9D%BC\)/검색일: 2018.10.23](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21n&artid=4517754&categoryid=506598®dt=20150815133417(%EA%B2%80%EC%83%89%EC%9D%BC:%202017%EB%85%84%207%EC%9B%94%2013%EC%9D%BC)/검색일: 2018.10.23).

〈표 2-5〉 통천 해양관광자원 요약

구분	자연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사회문화자원
통천	■ 해수욕장 - 시중호, 통천 ■ 경승지 - 총석정, 금란굴, 천아포, 국섬, 알섬 ■ 해양동식물 - 큰고니, 바다가마우지, 갯가마우지, 바다오리, 팍새, 검은머리갈매기 ■ 보호구 - 천아포 고니살이터 - 통천알섬 바닷새살이터	■ 유원지 - 유선장, 낚시터 ■ 해양휴양소 - 시중호 요양소 - 시중호감탕 - 기후요양지	■ 항만/여항 - 고저항 ■ 수산/양식사업소 - 통천, 금란, 512 수산사업소 - 총석세소 어업사업소 - 고저수산협동조합 - 바닷가양식사업소 - 민물양식사업소	■ 특산물 - 명태, 가자미, 오징어

자료: 윤인주·정유석,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 112; 윤인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 276 참고로 재구성.

22) 「조선신보」, 2014년 5월 22일; 이계환, “北,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 발표”, 「통일뉴스」, 2014년 5월 22일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Print.html?idno=107391>(검색일: 2018. 10. 22.).

3) 접근성

원산-금강산 간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안변-통천, 통천-금강 간 도로가 나 있다. 고성-원산, 통천-장전, 통천-고성, 통천-중전, 통천-가산 간 정기버스가 운행된다.

고저항에서 원산, 고성 간 정기해상로가 개설되어 있다.

구읍리 비행장이 있으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군용비행장이다.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향인 통천에 비행장 건설을 희망했고 2002년경 연간 3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2014년 7월에 중국 여행사가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금강산 1단계 개발 총계획’에 따르면 통천군 금란리 일대에 하루 3천~4천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²³⁾

4) 개발계획²⁴⁾

통천은 북한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총계획 중 2단계(2018~2025년)에 포함되어 있다. 통천지구의 총계획 영역은 9,000여 ha이고 동정호 구역과 시중호 구역으로 구분된다. 시중호 구역은 건강 및 치료 중심기지이다. 호텔 1천여 석과 요양시설 1천여 석을 개건·신설하고 건강시설, 운동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조성한다. 동정호 구역은 5천 6백여 석의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총석정에는 해수욕장, 선박계류장, 여객부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23) 최성원, “원산김대 비행장 현대화 사업”, 『유라시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제2015-4호, 2015년 2월 15일, pp. 9~10.

24)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 명의로 발표된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 내용 근거로 작성

〈그림 2-7〉 시중호관광지구 총계획도



자료: 강진규, 「[원산투자] 북한, 원산에 38만평 규모 골프장 건설 구상」, 『NK경제』, 2018년 7월 5일자,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검색일: 2018.10.23).

3. 원산

1) 개황²⁵⁾

원산은 북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항구문화도시로 동서 26km, 남북 18km이고 총면적은 약 320km²에 달한다. 남동부는 안변군, 남서부는 법동군, 북서부는 문천시와 접해 있다. 앞바다에는 여도, 신도, 대도 등 11개의 작은 섬(총 4km²)이 있다. 지명은 둥글게 생긴 산을 낀 고장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해안선의 굴곡이 복잡하지

25) 『조선신보』, 2014년 5월 22일; 이계환, “北,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 발표”, 『통일뉴스』, 2014년 5월 22일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107391>;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검색일: 2018.10.22).

않고 높이 1.5~2m의 사취가 넓게 퍼져 있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과 겨울 간 기온차가 심하지 않다. 연평균 기온은 10.4℃, 1월 평균 -3.6℃, 8월 평균 23.2℃이다. 연평균 일조시간은 약 2,422시간이고 연평균 일조율은 56%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1,400mm, 연평균 상대습도는 67%, 연평균 풍속은 2.2m/s이다.

기계·금속·조선·경공업, 수산업이 주를 이루고 인구는 35만 6천 명이다.²⁶⁾

2) 해양관광자원

원산은 경승·휴양·유람으로 북한에서 유명한 도시이다. 북한은 원산을 ‘동해의 진주’로 홍보하고 있다.²⁷⁾ 이미 북한에서 손꼽히는 휴양지로 송도원해수욕장, 송도원국제청소년야영소,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동방식 공원, 경마장, 야영장, 휴양소 등을 비롯해 350ha의 녹지 면적이 있다.

원산의 2대 명소 중 하나인 송도원 해수욕장은 40~100m 너비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바다 밑의 물 흐름이 느리고 간만의 차이가 1m 이하이다.²⁸⁾ 샤워시설과 탈의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일반인 유원지구역, 소년단 야영구역, 외국인 휴양구역 등으로 구분된다.²⁹⁾ 송도원여관과 동명여관 등 1,910여 석의 숙박시설이 있다.

26)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SubCont (검색일: 2018.10.23.).

27) 위의 기사.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0384(검색일: 2018.10.22).

29) 한국관광공사, <http://kto.visitkorea.or.kr/kor/biz/north/tour/res/kw/culre/board/view.kto?id=294388&rnum=23>(검색일: 2018.10.22.).

또 다른 명소는 갈마반도의 명사십리해수욕장이다. 명사십리(천연기념물 제193호)는 길이 4~6km, 너비 0.7~1.3km에 달하고 사빈의 높이는 해면보다 1~6m가량 높다.³⁰⁾ 갈마호텔, 새날호텔 등이 1,030여 석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표 2-6〉 원산 해양관광자원 요약

구분	자연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사회문화자원
원산	■ 해수욕장 - 송도원 - 명사십리 ■ 경승지 - 송도원 - 명사십리 - 갈마반도 ■ 보호구 - 대도 - 백로왜가리 번식지	■ 스포츠/체육시설 - 송도원국제 - 소년단야영소 ■ 유원지 - 동물원, 식물원, 야외극장, 수족관, 물놀이장 - 선착장, 케이블카 ■ 해양휴양소 - 송도원기후 휴양지	■ 항만/어항 - 원산항 ■ 조선·선박수리소 - 원산조선소 - 선박수리공장 ■ 수산·양식사업소 - 원산수산사업소 - 갈마세소어업 (연인어업)사업소	■ 특산물 - 명태, 정어리, 가자미, 청어

자료: 윤인주·정유석,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 112; 윤인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 276 참고로 재구성.

3) 접근성

원산은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철도의 주요 분기점이다. 서부로는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까지 갈 수 있다. 북쪽으로는 함흥과 청진을 거쳐 러시아 하산까지 갈 수 있다.

평양에서 원산 간에는 200km 상당의 고속도로가 있어 2시간이면 오갈 수 있다. 금강산이 있는 고성까지도 약 100km 구간의 고속도로

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8284(검색일: 2018.10.22.).

가 있어 1시간 30분이면 오갈 수 있다. 함흥까지는 약 111km 상당의 고속도로가 있고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원산항³¹⁾에는 원산공원 전면에 여객부두가 있고 만경봉 92호가 접안해 있지만 운항은 중단된 상태이다. 원산항에는 최대 선형 1만 톤급 이하의 화물선이 드나드는데 북한은 기존의 항을 안변군으로 이설하고 하역능력을 연간 200만 톤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신 갈마반도 주변 해안가에 연간 25만 명을 수용하는 여객부두 정박장 건설을 추진한다.³²⁾

북한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에 군용비행장이었던 갈마비행장도 민영화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정기적인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 약 40분이 소요된다. 도시중심부와 가까운 갈마비행항의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 수용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³³⁾ 향후에는 여객기 12대를 계류할 수 있는 대형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4) 개발계획³⁴⁾

원산은 북한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총계획 중 1단계(2013~2017년)로 지정되어 있다. 원산시 중심부, 마식령스키장, 올림폭포지구, 원산국제공항 등을 개발하여 사계절 종합관광지대로 조성

31) 송도원 북쪽과 갈마반도 북쪽을 연결한 일직선 안이다(항만 너비 3.2km, 부두연장 900m, 최대수심 6m). 원산항 서쪽에 위치한 장덕섬(방파제에 의해 육지와 연결)을 기준으로 남쪽 수역을 내항, 북쪽 수역을 외항으로 구분한다. 1호 부두(무역항 추정), 2호 부두(국내항 추정), 여객부두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 항만물류체계 기본 구상 연구」, 2018년 1월, p. 333.

32) 「조선신보」, 2014년 5월 22일; 이계환, “北,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 발표”, 「통일뉴스」, 2014년 5월 22일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107391>(검색일: 2018.10.22).

33) 안변이나 통천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

34)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 명의로 발표된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 내용 근거로 작성함.

할 계획이다. 송도원-명사십리-갈마반도 일대는 여름형 휴양지로, 마식령은 겨울형 휴양지를 지향한다.

도시중심부 총 계획 영역은 7,400여 ha로 주택단지, 산업지구, 녹지·관광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³⁵⁾ 주택단지에는 고층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산업지구는 무질서한 기존 기업소를 철거·통합하고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을 위주로 건설한다. 해안가를 따라 90ha에 달하는 녹지를 조성하고 수영장, 수족관, 문화오락시설, 식당 등을 집중 건설한다. 숙박시설은 송도원 해수욕장에 1만 2천 명 규모의 시설 증설을 계획한다.

갈마반도의 총 계획 영역은 1,400여 ha로 숙박구, 회의 및 전시 박물관, 체육경기구, 경제개발구, 상업편의봉사구로 구성된다. 명사십리에는 10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과 각종 유흥장, 자연공원, 별장구, 물놀이장을 계획 중이다. 숙박시설은 현재 1,030여 석에 추가로 9,070여 석을 추가하여 1만 1천여 석을 조성한다. 또한 갈마반도 앞바다의 섬들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원산은 기존 금강산관광과 달리 도심중심부를 개발하여 시내 투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마반도를 해안관광지구, 해양공원 등으로 지칭하고 스페인³⁶⁾·싱가포르³⁷⁾를 모방한 고급리조트 중심의 해양휴양지를 계획하

35) 「조선신보」, 2014년 5월 22일; 이계환, “北,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 발표”, 「통일뉴스」, 2014년 5월 22일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107391>(검색일: 2018.10.22.).

36) 2017년 6월에 북한 관리 20명이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알리칸테 등 스페인 서부 해안을 견학하고 Marina d'Or(리조트), Benidorm(아영지), Terra Mitica(테마파크) 등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https://www.libremercado.com/2018-01-02/asi-sera-el-marina-dor-que-kim-jong-un-quiere-levantar-en-corea-del-norte-1276611493/>(검색일: 2018.10.22).

37) 장재원, “카지노리조트 둘러본 김정은 “싱가포르 배우고싶다””, 「동아일보」 <http://news.dong a.com/3/all/20180612/90550668/1>(검색일: 2018.10.22).

는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해안경관 관람을 제공하고 워터파크, 국제회의전시장, 백화점, 문화시설(영화관, 소극장 등)을 비롯해 관광활동을 지원할 식료품·맥주 공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은 2019년 4월 15일(태양절)까지 원산갈마지구의 기본시설 완공을 예정했으나 10월 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연기했다.³⁸⁾

〈그림 2-8〉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자료: (왼쪽 상단) 뉴스원, <http://news.zum.com/articles/45356012>; (왼쪽 하단) 통일뉴스,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895>; (오른쪽 상단)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View?gid=90405012&date=20180605>; (오른쪽 하단) <https://www.libremercado.com/2018-01-02/asi-sera-el-marina-dor-que-kim-jong-un-quiere-levantar-en-corea-del-norte-1276611493/> (검색일: 2018.10.22.)

38) "건인불발의 투지와 배심을 안고 세상에 둘도 없는 해양공원을 건설하여 다음해 10월10일을 맞아 인민들에게 선물하자", 양은하, "北김정은 "관광지구, 제재 맞선 대결전"...원산갈마 시찰(종합)", 「뉴스원」, 2018년 8월 17일자, <http://www.news1.kr/articles/?3401421>(검색일: 2018.10.22.).

4. 함흥³⁹⁾

1) 개황

함흥은 함경남도의 도청소재지이자 관북 지방 최대 도시이다. 동서 39km, 남북 16km이고 총면적은 약 556km²에 달한다. 북부는 신흥군, 서부는 영광군, 남서부는 함주군, 동부는 낙원군, 북동부는 흥원군과 접해 있다. 흥남시로 승격했던 흥남구역은 함흥시 일부로 편입되었다.

동해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의 서해안 지방보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9.4℃, 1월 평균 -5.6℃, 8월 평균 22.9℃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934mm인데 61%가 여름에 내린다. 계절풍이 뚜렷하고 연평균 풍속은 2.9m/s이다.

화학·기계·금속 등 중공업을 비롯해 섬유·식품·생활용품 등 경공업도 발달한 대공업지구이다. 함흥인구는 약 67만 명, 흥남인구는 10만 명이다.⁴⁰⁾

2) 해양관광자원

함흥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자원은 흥남구역의 마전유원지이다. 해수욕장을 비롯해 휴양소, 야영소, 체육시설이 정비되어 있다. 일반해수욕장지구, 서호학생해수욕장지구, 소년단야영소지구, 백화원지구, 휴양소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해안을 따라 50~100m 폭으로 백사장 이 펼쳐져 있고 바다 쪽 50m까지 수심이 1.5m 정도이다. 북한은 2015년에 마전유원지 개건공사를 하고 단층·연립식 숙박시설, 야외 공연무대, 야외식당, 샤워장 등을 정비하고 1천m의 도로공사도 완료

39)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검색일: 2018.10.22)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40)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검색일: 2018.10.23).

했다.⁴¹⁾ 북한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우리투어스(Uri Tours)는 서핑에 특화된 관광상품을 런칭했다.⁴²⁾ 7박 일정 중 2일 정도를 함흥에 머무르면서 서핑을 배운다.

〈그림 2-9〉 함흥 마전해수욕장과 마전서핑학교



자료: (왼쪽)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35>; (오른쪽)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20/story_n_8165354.html(검색일: 2018.10.23.)

〈표 2-7〉 함흥 해양관광자원 요약

구분	자연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사회문화자원
함흥	■ 해수욕장 - 마전	■ 유원지 - 휴양소, 야영소, 놀이시설, 낚시터, 화초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항만/어항 - 흥남항 ■ 해운사업소 - 흥남해운사업소 ■ 수산/양식사업소 - 흥남, 서호수산사업소 - 은덕세소어업사업소 - 운동, 서호, 덕풍 수산협동조합	■ 특산물 - 명태, 도루묵, 정어리, 오징어, 콩치, 가자미, 까나리

자료: 윤인주·정유석,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 112; 윤인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 278 참고로 재구성.

41) 조정훈, “北, 완공 1년 늦은 '마전유원지' 사진 공개”,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35>(검색일: 2018.10.23).

42) 우리투어스, <https://www.uritours.com/tours/north-korea-surf-camp-expedition/>(검색일: 2018.10.23).

3) 접근성⁴³⁾

함흥은 북한 북부 지역의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도로는 원산-우암(나선) 간 1급 도로가 있다. 함흥-홍남, 함흥-낙원, 함흥-용림, 함흥-부전, 함흥-대흥 간에는 2급도로가 있다. 시내에는 무궤도전차가 운행한다.

철도는 평라선과 평라선의 1지선인 신흥선이 통과한다. 평라선은 간리에서 나진까지 이어진다. 신흥선은 함흥시의 함흥역과 부전군의 부전호반역을 연결한다. 함남선(함흥역-신흥역)과 송흥선(신흥역-부전호반역)으로 구분된다. 부전강수력발전소까지 연결되는 산업철도로 개마고원에 갈 수 있다.

항만은 홍남항이 있어 남쪽으로 원산항, 북쪽으로는 신포항, 단천항, 청진항, 나선향으로 연결된다. 홍남항은 북한 최대화학공업지구인 함흥공업지구의 관문항이다.

선덕비행장은 함흥 도심에서 25km 떨어져 있다. 순안공항에서 어랑공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일부 민항기가 머무르지만 주로 군용비행장이다.⁴⁴⁾ 평양에서 약 45분이 소요된다.

4) 개발계획

함흥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중 5대 물류산업단지(나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화학, 기

43)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철도 DB-총괄」,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7&q_bbscttSn=20170414175614312&q_lwprtClCode=;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D%9D%A5%EC%84%A0>(검색일: 2018.10.23) 종합.

44)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5>(검색일: 2018.10.24).

제, 방직 등이 발달한 대규모 공업도시이다.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지구이자 방직공업의 중심지로 해안 접근성을 활용한 물류 개발이 기대된다.

마전해수욕장과 같은 해안자원뿐 아니라 개마고원과 같은 산악자원도 있어 해안과 내륙을 연계한 관광개발도 기대된다. 마전해수욕장의 서핑스쿨은 외국에서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생태관광과 모험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마고원 트래킹 등도 관광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5. 청진⁴⁵⁾

1) 개황

청진은 함경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평양, 남포, 함흥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면적은 1,855km²이고 북부는 부령군·회령시·경흥군, 서부는 무산군·경성군, 동부는 나선시와 접해 있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연평균 기온은 7.6℃, 1월 평균 -6.7℃, 8월 평균 21.6℃이다. 봄과 여름철에 안개가 자주 끼고 일조율이 낮은 편이다. 안개일수는 연간 35~45일인데 90%가 4~9월경에 나타난다. 7월에 안개가 가장 많이 끼고 일조율이 최저점에 달해 25~30% 수준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600mm로 적은편이지만 때때로 폭우가 내린다. 연평균 풍속은 2.3m/s이고 풍속이 가장 높은 1월에는 3.5m/s에 달한다.

제철·제강·기계·화학공업이 발달한 북한 동북부 최대의 종합공업

45)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검색일: 2018.10.24)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지역이다. 주요 수산기지의 하나로 크고 작은 수산·양식사업소가 있다. 인구는 약 67만 명이다.⁴⁶⁾

2) 해양관광자원

청진은 인근에 ‘함북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칠보산이 있다. 칠보산 역시 금강산처럼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뉘어 해안 절경을 품고 있다. 칠보산은 금강산과 백두산에 이어 관광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진과 가까운 경성은 온천으로 유명하며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관모봉이 있다.

중국인은 물론 서구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은 교통의 요지인 청진을 거쳐 칠보산과 경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정으로 관광을 할 경우 해칠보를 유람하거나 해수욕, 해산물 식사, 뱃놀이, 해변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하고 청진의 선원구락부(클럽) 등을 방문한다. 서구 관광 여행사들은 청진이 북한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지역이며 바닷가에서 지역 주민과 비치발리볼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⁴⁷⁾

〈그림 2-10〉 해칠보 전경



자료: (왼쪽) http://ojs7.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644716&tag=%EB%B6%81%ED%95%9C&gb=tag; (오른쪽) sogwang.com(검색일: 2018.10.25).

46)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검색일: 2018.10.23).

47) 윤인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 260.

〈표 2-8〉 청진 해양관광자원 요약

구분	자연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사회문화자원
청진	■ 해수욕장 - 수남, 나남 - 경성, 용현 ■ 경승지 - 계엄, 너에바위, 인지섬	■ 해양휴양소 - 청진보양소 - 청진요양소 - 판장온천	■ 항만/어항 - 청진항 ■ 조선·선박수리 - 함북조선소 - 연합기업소 - 청진선박 수리공장 ■ 수산/양식사업소 - 청진, 연진수산 사업소 - 수산협동조합 (13개) - 바닷가양식 사업소 - 담수양어장 (2개)	■ 특산물 - 명태, 정어리, 낙지(오징어) 등

자료: 윤인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 282.

3) 접근성

청진은 북한에서 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도로는 원산-우암 간 1급도로가 통과한다. 청진-회령, 부거리-부령, 관해동-은덕, 봉안리-부윤 간에도 도로가 있다. 청진-부거(48km), 청진-경성(40km), 무산-광대암(40km) 간에 정기버스가 운행한다.

철도는 남부 해안을 따라 평라선이 통과한다. 평라선의 지선인 함북선, 강덕선, 송평선 등의 철도망이 있다.

청진항은 북한 동북부 최대 무역항이다. 무역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일본과 러시아를 오갔으나 현재 일본과의 운항은 중단됐다.

40km 거리에는 어랑비행장이 있다.

4) 개발계획

청진은 2013년 11월에 북한이 지정한 경제개발구 중 하나이다. 송평 구역 일대 약 5.4km²에 2억 달러를 투자해 공업·주택·공공지구 개발과 철도 신설을 하고 금속가공, 기계제작, 전자생산,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생산 및 중계수송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진경제개발구는 북한의 지방개발구 중에서도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⁴⁸⁾ 청진은 전통적인 공업지역으로 교통·전력·통신·용수 등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장마당의 규모가 크고 외국인의 방문도 잦다.⁴⁹⁾

〈그림 2-11〉 청진경제개발구 위치



자료: 고수석, “북한 경제개발구 13곳 상세 자료 입수” 중앙일보, 2015년 3월 18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17382427>(검색일: 2018.10.25).

48) 김연호, “[인터뷰]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박경애 교수 “북한 경제개발구, 청진 잠재력 가장 커”, 『VOA』, 2014년 5월 14일, <https://www.voakorea.com/a/1914350.html>(검색일: 2018.10.25.).

49) 임호열·김준영,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5, No.22, 2015년 4월 10일, p. 11.

6. 나선⁵⁰⁾

1) 개황

나선은 북한 북동부 최북단에 있는 도시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러시아에 접해 있다. 북부는 함경북도 경흥군, 서부는 함경북도 청진시(청암구역)와 접해 있다. 나진구역의 ‘나’와 선봉군의 ‘선’자를 따라 나선시로 불린다.⁵¹⁾ 총면적은 약 746km²에 달한다. 앞바다에는 대초도와 알섬(등대섬)등 10여 개의 섬이 있다.

바다의 영향으로 여름에 안개가 자주 끼고 날씨가 흐리며 겨울에는 북서풍이 강하다. 연평균 기온은 6.2℃, 1월 평균 -8.8℃, 8월 평균 20.8℃이다. 연 안개일수는 45~53일로 대부분 6~7월이다. 연평균 풍속은 나진에서 2.8m/s, 선봉에서 3.3m/s이다.

화학·섬유·건설공업, 수산업이 주를 이루고 인구는 약 20만 명이다.⁵²⁾

2) 해양관광자원

나선은 북한의 대외개방 전초기지이면서 중국·러시아의 동해출로 전략 상 주목받아 왔다. 나진항은 전면에 대초도와 소초도가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태풍과 해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천혜의 부동항이다.⁵³⁾ 1990년대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어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고 중국 등의 투자로 수산·섬유 등의 위탁가공을 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상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검색일: 2018.10.23)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51) 2000년 8월에 나진-선봉시가 나선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나진구역과 선봉군이 폐지되었다. 2004년 1월에는 나선직할시가 폐지되고 지역 전체가 함경북도에 소속되면서 나선시로 개편되었다. 위의 사이트.

52)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검색일: 2018.10.23).

53) 해양수산부,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 항만물류체계 기본 구상 연구」, 2018년 1월, p. 381.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비파도 일대이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청정 해역으로 바닷속이 비치고 수 km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비파도를 앞에 두고 있는 비파도해수욕장은 비파도와 잔교로 연결되어 있다. 해수욕장 뒷산 기슭에는 홍콩 자본이 투자한 5성급 엠퍼러(영황)호텔 및 카지노가 2000년에 개장했다.

또 다른 대표자원은 우암물개이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제339호로 두만강 하구와 우암 앞바다에 서식한다. 비파도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200ha에 해당하는 물개자연보호구가 있다. 많은 경우 300여 마리가 모여든다.⁵⁴⁾

〈표 2-9〉 나선 해양관광자원 요약

구분	자연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사회문화자원
나선	■ 해수욕장 - 추진, 갈음단, 비파 ■ 경승지 - 대초도, 소초도, 비파도, 피도, 알섬(등대섬), 솔섬, 대도, 소도 등 ■ 해양동식물 - 재갈매기, 가마우지, 바다오리, 불주둥이 등 - 우암물개 (천연기념물)	■ 카지노 - 영황(엠퍼러) 호텔 ■ 기타 - 해안공원	■ 항만/여항 - 나진항 - 선봉항 ■ 조선·선박수리소 - 나진조선소 - 선박수리공장 ■ 수산·양식사업소 - 나진, 선봉, 우암수산사업소 - 나진, 약산, 요창 바닷가양식 사업소 - 안주세소어업 사업소 - 수산협동조합 10개	■ 문화재/기념물 - 비파섬유적, 초도유적, 소초도 조개무지 ■ 특산물 - 명태, 정어리, 미역, 청어, 조개류, 송어 등

54) KBS남북의창, “[요즘 북한은] 대동강 낚시대회 外”, 2011년 8월 27일.
<http://mn.kbs.co.kr/news/view.do?ncd=2347009>(검색일: 2018년 10월 23일).

구분	자연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사회문화자원
	■ 보호구 - 우암물개보호구 - 선봉알섬바다새 번식지			

자료: 윤인주·정유석,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 112; 윤인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 276; 이승현, “北, 라선 해수욕장에서 텐트야영 운영”,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56> (검색일: 2018년 10월 23일) 참고로 재구성.

〈그림 2-12〉 나선 비파도 및 간이선착장 전경



자료: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5675853>; <https://news.joins.com/article/5681683> (검색일: 2018.10.23.)

3) 접근성

나진은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거점이다. 중국 훈춘까지는 고속도로(93km)가 완공되어 있다. 러시아 하산까지는 철도(54km)가 있어 주 2회 정기운행한다.

평양에서 나진까지는 함흥, 청진 등을 경유하는 평라선이 오가는 데 약 800km이고 약 1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가까운 북한 도시로는 청진이 있는데 약 100km 상당의 1급도로가 있고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나진항은 훈춘-나진-닝보 간 해륙복합운송루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만경봉호가 2016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연안부두를 왕복하고 있다.⁵⁵⁾

인근에 공항은 없는 실정이다.

4) 개발계획

북한은 중국·러시아 관광객 증가를 기회 삼아 나선에 대규모 해양관광특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2010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특별시 관광종합개발회사 개발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비파도 인근 해변 일대 15만㎢(4만5천 평)에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리조트를 개발하고자 한다.⁵⁶⁾ 1단계로 해운대 절반 규모인 3만㎡ 규모의 해변에 레저시설을 건설한 다음 보트·요트계류장 등 부대시설과 주변환경 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크루즈선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항을 건설하고 호텔, 식당, 위락시설을 조성한다. 3단계는 회의실과 연회장을 갖춘 호텔을 비롯해 해빈아파트라는 이름의 고급빌라촌을 조성한다.

2015년 11월에는 나선을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⁵⁷⁾ 이 계획은 관광지(10개)와 산업구(9개) 개발을 비롯해 투자·세금·기업 정책을 담고 있다.

55) 3개 부두가 있는데 1호 부두는 중국(청리그룹), 3호 부두는 북한합자(나선콘트러스트)가 합쳐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 항만물류체계 기본 구상 연구」, 2018년 1월, p. 383.

56) 중국 지안그룹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작성. 개발주체는 ‘라선특별시 관광종합개발회사’. 「중앙일보」, “[단독] 北 ‘전기 철조망’ 쳐놓고 개발하는 곳 가보니”, 2011년 6월 22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5675853>(검색일: 2018.10.23.)

57) 이봉석·임은진, 「단독북한'나선특구'종합개발계획 확정·홍공식 모델 자랑」, 「연합뉴스」, 2015년 11월 8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7/0200000000AKR20151117162000014.HTML>(검색일: 2018.10.23.)

〈표 2-10〉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 중 관광지개발대상

관광지개발대상	면적(km ²)	투자규모(US\$)	내 용
비파섬생태관광구	2	8.9억	바닷가관광, 회의 및 전시장, 휴식, 오락, 해수욕, 해저탐방
추진휴가 및 별장촌	1	4.5억	해수욕, 골프, 천렵, 오락, 고려치료시설
해상금관광지구	0.8	3.2억	야외전시
신해국제회의구	6.2	25.8억	국제회의주최 및 봉사, 해수욕, 거북선 해상전투장면 재현
창진동식물원	6	12.3억	식물원
갈음단해수욕장	0.5	0.2억	전용해수욕장
웅상해양체육관광지	2	4.9억	해양체육활동, 해수욕
우암해돋이부감관광지	6	4.3억	해돋이 및 고대건축물 축소모형
사향산 산관광지	-	0.6억	등산지역
소초도유람선관광	2	0.7억	나진만 주변 관광

자료: 문관현, “북한”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주요 내용”,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7/0200000000AKR20151117176200014.HTML>(검색일: 2018. 10. 23.)

제3장

국외사례 분석

제1절 중국

1. 관광 부문 개황

1) 관광 관련 정부 조직 및 정책 현황

중국의 관광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조직은 문화관광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로, 2018년 3월 문화부와 국가관광국(中國國家旅遊局)이 문화관광부로 통합·신설되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 및 관광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문화사업과 산업, 관광업 발전을 총괄·기획하는 ‘문화혜민(文化惠民)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⁵⁸⁾

58) 황현철, “‘10대 키워드’로 읽는 중국 국무원 조직 개편”, 『아주경제』, 2018년 3월 14일자, <http://www.ajunews.com/view/20180314163325209> (검색일: 2018.10.23.)

〈표 3-1〉 중국 문화관광부의 주요 업무 영역

주요 업무 내용
• 문화/관광 연구와 정책 개발, 문화/관광 관련 법률 초안 작성 • 문화 산업 및 관광 개발 계획 수립, 문화/관광 통합 발전 및 시스템 개선 추진 • 주요 국가 문화 활동 관리, 국가 주요 문화 시설 건설 지도, 관광 진흥, 국제 협력 및 홍보 • 문학 및 예술 창작 관리/지도/지원, 다양한 예술 분야 발전 촉진 • 공공문화사업 발전 촉진,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관광 공공 서비스 강화, 문화해민 사업 구현, 공공문화 서비스 표준화 • 문화/관광산업 발전 촉진, 문화/관광 산업의 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 •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대중화, 진흥 및 활성화 촉진 • 문화/관광 산업 발전 촉진, 문화/관광 자원 조사, 발굴, 보호 및 활용 • 문화/관광 시장에 대한 감독 및 신용체계 구축 촉진, 법률에 근거한 문화/관광 시장 규제 • 포괄적인 법 집행, 문화, 문화 유물,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영화, 관광 및 기타 시장에서의 불법 활동 조사 • 국제 문화 관광 협력 협정 체결, 홍콩/마카오/대만과의 대규모 문화 관광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 홍보 • 국립문화유산국 관리 •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기타 업무

자료: 중국 문화관광부, https://www.mct.gov.cn/gjwhhb/zyzz/201705/t20170502_493564.htm
(검색일: 2018.10.3.)

중국은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1970년대 말부터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법 제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5월 국무원이 ‘전국관광업무회의(中国旅游工作会议)’를 통해 중국식 관광산업 구축을 위한 지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⁵⁹⁾

가장 최근에 수립된 중국의 관광 관련 기본정책은 2016년 12월 비준·발표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⁶⁰⁾이

59) 최금정, 「중국의 레저스포츠 관광실태 분석 및 유치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p. 32.

60) 중국정부(국무원),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2/26/content_5152993.htm(검색일: 2018.10.3.)

다. 본 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중국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약 7조 위안(1,144조 원)까지 확대하고, 관광산업이 연간 국내총생산 중 12%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육성할 예정이다.⁶¹⁾ 또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규모를 1.5억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관광 부문에 2조 위안(약 32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3-2〉 중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

항목	2015년 수치	2020년 목표치	연평균 성장률(%)
국내 관광객 수(억명)	40	64	9.86
인바운드 관광객 수(억명)	1.34	1.50	2.28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억명)	1.17	1.50	5.09
총 관광 수입(조 위안)	4.13	7.00	11.18
관광투자(조 위안)	1.01	2.00	14.65
관광업의 GDP 기여율(%)	10.8	12.0	-

자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2/26/content_5152993.htm(검색일: 2018.10.3.)

2) 관광객 현황

중국 국가관광국통계센터(国家旅游局数据中心)의 ‘2017년 관광시장 종합보고서(2017年全年旅游市场及综合贡献数据报告)’에 따르면 2017년 국내관광객 수는 약 50억 명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국내관광 소비액은 약 4.57조 위안(약 747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했다.⁶²⁾ 한편 UNWT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6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2014년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560만 명으로 2013년에 비

61) 본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의 〈중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 실행전략〉 참고
 62) 중국관광연구원, <http://www.ctaweb.org/html/2018-2/2018-2-2-16-21-05573.html>
 (검색일: 2018.10.4.)

해 약 10만 명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3〉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관광객 수(백만명)	55.7	55.6	56.9	59.3	60.7
전년대비 증감률(%)	-	-0.2	2.3	4.2	2.4

자료: UNWTO,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16, March/April 2018; 관광자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검색일: 2018.10.4.)

관광산업의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2013년 2.7%의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를 합쳐 9.6%의 총 효과를 기록했다. 이후 직접효과와 총 효과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GDP에 직접효과 3.3%, 총 효과 11%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중국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접효과(%)	2.7	2.9	3	3.2	3.3
총효과(%)	9.6	10	10.5	11	11

자료: 세계여행관광협회, www.wttc.org; 관광자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검색일: 2018.10.4.)

또한 관광산업은 매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13년 2,714만 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했으며,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하면 총 7,24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최근 5년간 관광산업의 신규 일자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기준 직접 고용자 수는 2,825만 명이며 총고용자 수는 7,990만 명을 기록했다.

〈표 3-5〉 중국 관광산업의 고용 기여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접고용자 수(천명)	27,147	27,794	27,980	28,130	28,250
총고용자 수(천명)	72,493	74,899	76,746	78,680	79,900

자료: 세계여행관광협회, www.wttc.org;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검색일: 2018.10.4.)

한편 UNWTO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2013년 51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관광수입은 3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6%가 감소했다. 반면 관광지출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286억 달러에서 2017년 2,577억 달러로 연평균 약 19%씩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중국의 관광수입 및 관광지출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관광수입(십억 달러)	51.7	44	45	44.4	32.6
전년대비 증감률(%)	-	-14.9	2.3	-1.3	-26.6
관광지출(십억 달러)	128.6	227.3	249.8	250.1	257.7
전년대비 증감률(%)	-	76.7	9.9	0.1	3.0

자료: UNWTO,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16, March/April 2018;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검색일: 2018.10.4.)

3) 해양관광 여건

중국은 1만 8천km의 해안선과 1만 1천여 개의 섬, 11개의 크루즈 터미널과 마리나항만 101개소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 확대 등 전 세계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및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중국에서도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3월 중국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이 발표한 ‘2017년 중국 해양경제통계공보(2017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해양 총생산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7조 7,611억 위안(약 1,270조 원)으로 국가 GDP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3-7〉 중국의 부문별 해양총생산 규모(2017년)

구분			총생산액 (억위안)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해양총생산			77,611	100.0	6.9
해양 산업	주요 해양 산업	어업	4,676	6.0	-3.3
		해양석유 및 가스산업	1,126	1.5	-2.1
		해양광업	66	0.1	-5.7
		염업	40	0.1	-12.7
		해양화학공업	1,044	1.3	-0.8
		해양바이오의약품산업	385	0.5	11.1
		해양전력산업	138	0.2	8.4
		해수이용업 (해수담수화 산업)	14	0.0	3.6
		해양조선산업 (조선 및 플랜트)	1,455	1.9	-4.4
		해양건설업	1,841	2.4	0.9
		해운업	6,312	8.1	9.5
		해양관광업	14,636	18.9	16.5
	해양과학교육서비스업		16,499	21.3	11.1
해양연관산업			29,377	37.9	-

자료: 중국 국가해양국, http://www.soa.gov.cn/zwgk/hygb/zghyjtggb/2017njtjgb/201803/t20180301_60481.html(검색일: 2018.10.4.)

이 중 해양관광업 규모는 1조 4,636억 위안(약 239조 원)으로 전체 해양총생산의 18.9%를 차지하며 12개 주요 해양산업 중 46.1%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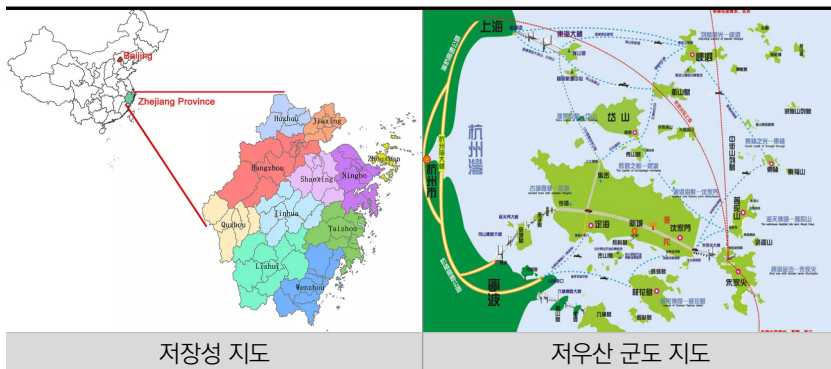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³⁾ 중국의 해양관광업 규모는 2016년 1조 2,047억 위안으로 2015년에 비해 10.8% 성장했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16.5% 성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 해양관광지 사례 분석 : 저우산 군도

1) 대상지 개요

저우산 군도는 저장성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며 중국 전체 도서의 20%에 해당하는 1,390개 도서가 위치하고, 육지 면적은 1,371km²(저우산 군도가 속해 있는 저우산시는 1,440km²), 해상 면적은 2만km²에 달한다.

〈그림 3-1〉 중국 저장성과 저우산 군도 지도



자료: Research Gate,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The-map-of-Zhejiang-Province_fig4_282345626; 舟山网, http://www.zhoushan.cn/rdzz/gjjhzhkfc/zsgk/201106/t20110602_491260.htm(검색일: 2018.10.23.)

63) 중국 국가해양국, http://www.soa.gov.cn/xw/hyyw_90/201803/t20180301_60486.html(검색일: 2018.10.4.)

저우산 군도는 2011년 6월 30일 해양경제관련 첫 번째 국가급신구로 지정되었으며,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 선도와 해양종합개발시험구로서 의의가 있다.

2) 관광 여건 및 현황

저우산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 저장성은 중국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지역으로(6,486km, 전 중국의 20.3%) 아름다운 풍광과 온화한 기후로 유명하다. 저우산 군도 주변에는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와 닝보, 연안 경제개방구인 장강 삼각주가 있어 높은 소비력을 가진 배후 시장이 발달해 있다. 또한 선박, 항공, 도로 등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저우산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도서 지역 민박, 휴양, 해산물, 어촌 풍경, 해양문화, 불교수양 체험 등을 6대 관광상품 테마로 설정하고 관광 편의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우산 군도는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인 크루즈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남북 해운통로와 장강 황금 수로 교차점에 위치해 지리적 조건이 우수하며, 방대한 잠재 고객과 풍부한 연계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⁶⁴⁾ 저우산시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2010년 7월 총 6.3억 위안을 투자하여 저우산군도 국제크루즈 부두 유한공사⁶⁵⁾를 설립했는데,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고 연간 46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 2017년도 기준 저우산군도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약 3.1만 명으로 2016년의 1.7만 명에 비해 72.9% 급증했다.

64) 邮轮参考, 『2017-2018中国邮轮港口发展年度研究』, 2018.2., pp. 35-39.

65) 2013년 1월 저우산군도 국제크루즈항 유한회사로 변경됨

저우산시는 2011년 해양종합개발시험구 지정 전부터 해양자원을 이용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대표적으로 2007년 ‘저우산시 해양관광산업 발전 총체 계획’(舟山市海洋旅游产业发展总体规划)을 통해 2021년까지 해양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2016년에는 ‘저우산시 관광업 발전 13.5 계획(이하 13.5 계획)’을 수립한 것을 들 수 있다.

13.5 계획은 저우산 군도의 관광 테마를 도서휴양과 불교문화 체험으로 설정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①관광업의 시스템 전환과 업그레이드, ②관광경제 강성 도시 건립, ③저우산 국민경제 주도산업화, ④저우산 신규 경제사회발전, ⑤‘4개도서 1개 도시 1개 중심’(四岛一城一中心) 건설 기여 등을 기본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 전략으로 ①‘1핵 1축 2권 다도 연선’(一核一轴两圈多岛连线) 전략, ②관광투자 등을 통한 관광발전 플랫폼 구축, ③관광산업 융복합 촉진, ④관광소비 구조 및 유형화, ⑤관광발전 변혁 심화, ⑥공공 서비스 업그레이드, ⑦관광 혜택 공유 등을 설정하였다. 그중에서 ‘1핵 1축 2권 다도 연선’ 전략은 저우산 군도 전체 공간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8〉 ‘1핵 1축 2권 다도 연선’ 전략의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핵(一核)	푸톈산과 주자지엔을 핵심으로 하는 푸톈산국제관광군도핵심구. 불교문화, 모래사장, 생태환경 등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제, 해양오락, 휴양, 건강양생, 해양스포츠, 크루즈, 신혼여행 등을 중점 개발하여 해양관광산업 집약 구역 조성
1축(一轴)	저우산군도 도시의 핵심 주축선 구성. 고성문화, 어항 풍경, 해군, 무역자원 등을 이용하여 항구도시 경관, 해산물 음식, 휴양 등 상품을 중점 개발.

구분	세부 내용
	주축선은 저우산대교, 덩하이고성, 저우산신성, 셴지아먼 항구, 동항 상권 등으로 이어짐
2권(两圈)	성스(嵊泗) 열도 리조트 지역과 다이산(岱山) 생태휴양지역을 의미
다도(多岛)	‘1섬1테마’ 개념에 근거하여 각 섬별로 여행 테마 개발
연선(连线)	푸뉘산, 성스, 동지, 셴지아먼, 덩하이 등으로 이어지는 특색있는 해상관광루트

자료: 舟山市旅游委员会, 舟山市旅游产业发展“十三五”规划 (2016.8)

저우산시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2020년 목표 관광객 수 8천만 명, 외국인관광객 수 80만 명, 관광수입 1,100억 위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체류기간 2.5일, 1인당 관광소비액 1,600위안, 국가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9%,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관광업 세수 비중 8%,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관광업 취업인 수 12%, 관광객 만족도 95% 이상 등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표 3-9〉 중국 저우산시 2020년 관광산업 발전 목표

구분	주요 지표	2015년	2020년
규모지표	관광객 수(만명)	3,876.22	8,000
	숙박 관광객 수(만명)	2,043	4,500
질량지표	1인당 관광소비액(위안)	1,400	1,600
	만족도(%)	92.19	95
효익지표	관광산업 총수입(억위안)	552.18	1,100
	관광산업 부가가치(억위안)	80.15	162
	관광산업의 GDP 비중(%)	7.32	9

자료: 舟山市旅游委员会, 舟山市旅游产业发展“十三五”规划 (2016.8)

저우산 군도 지역의 해양관광산업 성장세는 뚜렷하다. 2018년 7월 현재까지 저우산 군도 관광객 수는 3,641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했고 관광수입은 53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1% 급증했

다. 2010년대 들어 관광객 수 증가율은 매년 두 자리 수를 기록했으며, 관광수입도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증가율이 21.9%에 달했다. 저우산 군도의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증가율은 중국 평균치를 뛰어넘는 수치다.⁶⁶⁾ 또한 관광업을 통한 세수는 지방 재정수입의 6.09%이고, 직접 고용은 전체 고용 중 8.8%를 차지한다.⁶⁷⁾ 한편 저우산시의 산업 구조는 1차·2차 산업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45.5%에서 2016년 49.6%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3차 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종합개발시험구인 저우산시의 높은 해양관광 산업 성장세를 추론해 볼 수 있다.⁶⁸⁾

3. 시사점

중국의 저우산 군도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남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북한과 상이하다. 또한 이들 경제특구는 해양관광을 비롯한 해양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지 않아 분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반면 국가급신구인 저우산 군도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환경적 측면에서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급신구의 조성 목적이 경제 발전 외에 정치·행정·사회 등

66) 저우산시여유위원회(舟山市旅游委) 각년도 통계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중국 국내관광객수와 관광수입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11.0%, 13.6% △2017년 12.8%, 15.1% △2018년 상반기 11.4%, 12.5%였는데, 저우산시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은 평균치를 크게 뛰어넘음.

67) 저우산시여유위원회(舟山市旅游委) 통계자료 각년도, <http://xxgk.zhoushan.gov.cn/col/col1277967/index.html>(검색일: 2018.9.3.)

68) 舟山市, 舟山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각년도.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므로 제도적 측면에서도 북한에의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저우산 군도는 해양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국가급신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공동 개발이 중요한 요소인데 저우산 군도의 인프라나 기초 산업 여건과 규모, 민간의 시장 참여, 외래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은 북한에도 참고할 만하다. 저우산 군도의 관광산업 측면에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0〉 저우산 군도 관광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기회(Opportunity)
• 장강 삼각주의 거대한 배후 소비시장 • 아름다운 자연환경 •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불교 성지 • 풍부하고 특색 있는 해양문화 • 중국내 어업생산 중심 • 풍부한 노동력 • 탄탄한 사회경제 기초 • 풍부하고 특색있는 음식	• 리조트 휴양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저우산 교통 접근성 개선 • 국내 및 주변 지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 및 소비력 • 해상대교 건설 및 해상관광교통 발전 • 지역 주민의 소형 관광기업화 • 투자자들의 저우산관광 투자 관심 증대
위협(Threat)	약점(Weakness)
• 통제되지 않은 관광업 투자로 대량의 투기행위 발생 및 수준 낮은 개발 •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파괴 • 경쟁격화로 이윤 하락 • 관광객의 대량 유입으로 환경오염 발생 • 대규모 항구 및 공업 개발과 관광 발전간 충돌 가능성 • 주민의 소극적 관광업 참여	• 관광발전을 위해 사용가능한 토지 부족 • 도시건설수준 낮고 과도한 개발로 경관파괴 • 환경보호의식 부족 • 효율적이지 못한 공공교통 • 수상교통의 관광상품화 부족 • 정부 관련 부처간 협력관계 부족 • 군도 서부의 혼탁한 수질 • 계절적인 제약

자료: 전문가자문·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우산 군도의 해양관광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 경제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검토한 내용과 관광산업적 측면에서 저우산 군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기회, 위기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우산 군도의 해양관광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개발 및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다. 둘째, 저우산 군도는 아름다운 해양경관자원과 거대한 배후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육상, 해상, 항공 등 저우산 군도로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넷째, 해양관광 관련 기업이 높은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인 기업과 소규모 경영 등 해양관광업에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저우산 군도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 증가율에 비해 국외 관광객 증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국외 관광객 증가율은 2015년 2.1%, 2016년 5.2%, 2017년 1.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저우산시는 해양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외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국제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절 베트남

1. 관광 부문 개황

1) 관광 관련 정부 조직 및 정책 현황

베트남의 관광 관련 중앙정부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이며, 산하의 관광청(Vietnam National

Administration of Tourism)이 베트남 관광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관광청은 관광과, 호텔과, 국제협력과, 마케팅과 등으로 구성되며, 관광정보기술센터, 관광발전연구원, 베트남 관광 리뷰, 관광신문 등의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했다. 도이모이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 부문만 시장경제체제로 도입하는 것으로, 농업·금융 개혁, 국유기업 민영화, 사기업 육성, 시장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표 3-11〉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추진 과정

구분	~1986년	1986~1993년	1994~2006년	2006년~
경제체제	계획경제	계획/시장경제 공존	시장경제 주도	시장경제 정착
주요정책	• 남베트남 사회주의 • 농업집단지화 및 식량가격 통제 • 토지국유화 • 중화학 육성	• 도이머이 정책 시작 • 외국인투자법 공포 • 배급제 폐지 • 국영기업 경영 자유화	• 미국과 국교 정상화 • 미국과 무역 협정 체결 • 외국인투자법 개정	• 사기업공식 허용 • 미국과 항구적 무역관계 설정 • WTO 가입 • 각종 세법 개정
기업정책	국유기업 체제	국가보조금 폐지	국영기업 민영 및 주식회사화	기업경영/회계제도 국제표준화

자료: 유승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원산개발협력은행(가칭) 활용 방안 제언’, 삼성증권, 2018, p. 9.

베트남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공업단지, 수출가공공단, 경제특구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설립된 경제특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산업, 제조, 서비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 금융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특구는 베트남 전역에 걸쳐 조성 중이며 중부에 10여 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용 항만과 경제 활동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2015년 말 기준 베트남 정부

는 연안지역을 따라 총면적 54,000ha에 이르는 18개소의 경제특구를 조성·운영하고 있다.⁶⁹⁾ 특히 연안지역에는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해 해양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2013년 기준 총 15개소 개발 계획 수립).⁷⁰⁾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했으며, 점진적, 단계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1986년~199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6.1% 수준에서 발전기(1995년~2007년) 7.3%, 확장기(2008년~2016년) 5.9%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⁷¹⁾ 베트남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투자금, 차관, 원조자금 등을 도로, 전력,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제 성장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베트남의 관광산업도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급성장하였다. 개방·개혁 정책 이후 해외 거주 베트남인(비엠티)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호찌민(남부), 호이안(중부), 하노이(북부)를 거점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하였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인근에 위치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광 수요가 급감한 것이 상대적으로 베트남 관광산업에 기회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가항공 취항이 시작되면서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으로 관광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⁷²⁾ 또한 베트남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4개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

69) 외교부, 「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특구」, 2017., p. 38.

70) 베트남 투데이, 「5개 해양경제구 우선 개발」, http://www.vietnam2day.com/sub_read.html?uid=7869§ion=sc1, 2012.7.11.(검색일: 2018.10.8.)

71) 현대경제연구원,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VIP 리포트」, 725호, 2018.6.12., p. 7.

72) 신짜오 베트남, 「승승장구하고 있는 베트남 관광산업의 비결」,

<http://www.chaovietnam.co.kr/archives/23093>, 2018.5.27. (검색일: 2018.10.8.)

고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 및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과 완화를 위해 관광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⁷³⁾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의 경제 구조는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6년 베트남 국내총생산은 농림·어업이 38%, 제조/건설업이 29%, 서비스업이 33%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농림·어업 18%, 제조/건설업 36%, 서비스업 45%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2차,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경제 구조 변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2016-20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GDP 중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8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⁷⁴⁾

베트남 정부는 2006년 개최된 제10차 전당대회 4차 회기에서 해양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0년에는 해양산업이 GDP에 53~55% 기여할 수 있도록 연안지역의 경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⁷⁵⁾ 본 계획에 따라 2013년 해양관광 부문 육성을 위한 ‘Development of Viet Nam’s islands and sea and coastal region tourism by 2020’을 수립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양관광을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천 2백만 명, 국내관광객 5천 8백만 명, 관광수입 200조 동(약 9조 7,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 규모의 해변 관광지 6개소와 해양관광 활동이 가능한 5개의 항만을 개발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 브랜드 개발, 해양관광 상품 개발, 주요 해양관광지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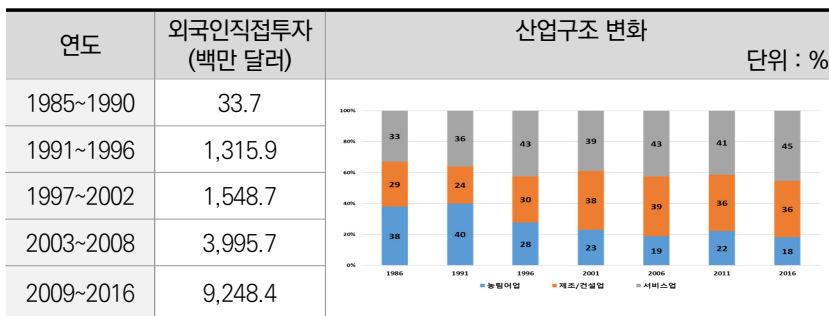
73) <http://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new-laws-to-be-in-effect-in-2018.html/>(검색일: 2018.10.8.)

74) Resolution No. 142/2016/QH13;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국가정보」, 2016., p. 18.

75) 베트남 투데이, ‘베트남 해양경제 시대의 개막’, http://www.vietnam2day.com/sub_read.html?uid=87§ion=sc1, 2007.2.27.(검색일: 2018.10.8.)

으로 한 해양관광 전문인력 개발, 해양관광특구 조성, 리조트와 관광 시설 조성,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역 주민의 참여, 정부 유관부처와의 협력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⁷⁶⁾

〈표 3-12〉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산업구조 변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VIP 리포트」, 725호, 2018.6.12., pp. 7~8.

〈표 3-13〉 2020년 베트남 해양관광 부문 정책 목표

구분	
해변 관광지 조성	하롱베이(바이 투 롱, 갯바섬), 랑코 해변(다낭 인근), 꼬 라오 참섬(호이안), 캄라인(나트랑), 무이네(판티엣), 푸꾸옥섬
항만 조성 및 정비	하롱베이, 다낭, 나트랑, 호치민, 푸꾸옥섬

주: 2016.3.18. 기준.

자료: 베트남 관광청, <http://vietnamtourism.gov.vn/english/index.php/items/10259>(검색일: 2018.10.4.)

2) 관광객 현황

최근 5년 동안 베트남 국내관광객 규모는 2011년 3천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5천 7백만 명으로 성장했다. 특히

76) 베트남 관광청, <http://vietnamtourism.gov.vn/english/index.php/items/7382>(검색일: 2018.10.8.)

2015년 국내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50% 가까이 증가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표 3-14〉 베트남 국내관광객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관광객 수(천명)	30,000	32,500	35,000	38,500	57,000
전년대비 증감률(%)		8.3	7.7	10.0	48.1

주: 2016.3.18. 기준.

자료: 베트남 관광청, <http://vietnamtourism.gov.vn/english/index.php/items/10259>

(검색일: 2018.10.4.)

UNWT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천 3백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2013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60만 명으로 이후 2015년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에 비해 26.6% 증가해 1천만 명을 달성했다.

〈표 3-15〉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관광객 수(백만명)	7.6	8	7.9	10	12.9
전년대비 증감률(%)	-	5.3	-1.3	26.6	29.0

자료: UNWTO,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16, March/April 2018;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검색일: 2018.10.4.)

베트남 관광업계는 이와 같은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관광숙박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관광숙박 업체는 2010년 12,352개에서 2015년 18,800개로 연평균 8.8% 증가했으며, 객실 수는 2010년 23만 7천 개에서 2015년 35만 5천 개로 연평균 8.4%씩 늘어나고 있다.

〈표 3-16〉 베트남 관광숙박 시설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4	2015
업체 수(개)	12,352	13,756	15,381	16,000	18,800
전년대비 증감률(%)	-	11.4	11.8	-	17.5
객실 수(개)	237,111	256,739	277,661	332,000	355,000
전년대비 증감률(%)	-	8.3	8.1	-	6.9

주: 2016.3.18. 기준, 2013년 자료 부재

자료: 베트남 관광청, <http://vietnamtourism.gov.vn/english/index.php/items/10262>(검색일: 2018.10.4.)

관광산업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2013년 5.6%의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까지 포함해 9.3%의 총 효과가 발생했다. 이후 직접효과와 총 효과 모두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GDP에 직접효과 5.9%, 총 효과 9.4%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베트남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접효과(%)	5.6	5.5	5.6	5.8	5.9
총효과(%)	9.3	9.1	9.2	9.2	9.4

자료: 세계여행관광협회, www.wttc.org; 관광자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검색일: 2018.10.4.)

관광산업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34만 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했으며,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하면 총 40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14년 직접 고용 232만 명, 총 고용 399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해 최근 3년간 관광산업의 신규 일자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직접 고용자 수는 246만 명이며 총고용자 수는 406만 명 수준이다.

〈표 3-18〉 베트남 관광산업의 고용 기여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접고용자 수(천명)	2,345	2,323	2,325	2,402	2,468
총고용자 수(천명)	4,042	3,994	3,942	3,987	4,061

자료: 세계여행관광협회, www.wttc.org;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검색일: 2018.10.4.)

UNWTO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 수입은 2013년 7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관광수입은 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상승했다. 관광지출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21억 달러에서 2017년 51억 달러로 연평균 약 24.8%씩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중국의 관광수입 및 관광지출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관광수입(십억 달러)	7.3	7.4	7.4	8.3	8.9
전년대비 증감률(%)	-	1.4%	0.0%	12.2%	7.2%
관광지출(십억 달러)	2.1	2.7	3.6	4.6	5.1
전년대비 증감률(%)	-	28.6%	33.3%	27.8%	10.9%

자료: UNWTO,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16. March/April 2018;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검색일: 2018.10.4.)

3) 해양관광 여건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바다에 접하고 있다. 열대계절풍 기후로 연평균 온도는 북부가 23℃, 남부가 27℃ 수준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500mm~2,000mm, 습도는 80%이다. 동북 몬순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에 위치한 다른 국가보다 평균 온도가 낮고 4계절이 나타난다. 베트남의 해안선은 3,260km에 달하며, 해

양영토의 면적이 국토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베트남의 해변은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평균 경사가 20~30° 정도로 해수욕이나 해변 경관 감상, 휴양, 레저·스포츠 등의 활동에 적합하다.⁷⁷⁾

베트남 연안에는 약 3천여 개의 도서가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이 1 km² 이상인 도서가 90여 개이다. 또한 풍부한 수산물, 125개소 이상의 해변, 만과 동굴, 산호초 군락, 해양보전지구, 세계자연유산 1개소(하롱베이)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윈드서핑, 비치발리볼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를 위한 관광객의 비율도 높다.⁷⁸⁾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중 70% 정도가 해양관광객으로 추산되며,⁷⁹⁾ 국내관광객 중에서는 50%가 해양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체 관광수입 중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⁸⁰⁾

연안 지역에는 약 1,400개의 관광숙박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45,000개 이상의 객실이 운영 중이다. 아울러 크루즈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홍콩과 싱가포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크루즈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6,400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크루즈선박 기항 횟수는 총 493회로 전망된다.⁸¹⁾

베트남은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28개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으

77) 응엔 민 프영 응,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19.

78) 베트남 관광청, <http://www.vietnamtourism.com/en/index.php/news/items/12367>(검색일 2018.10.8.)

79) 베트남 관광청, <http://vietnamtourism.gov.vn/english/index.php/items/7382>(검색일 2018.10.8.)

80) Nguyen Hoang Ha, "Viet Nam's marine industries : Current state and perspectives", *The East Asian Seas Congress 2015*, 발표자료. p. 8.

81) CLIA, *Asia Cruise Trends 2018*, 2018.7, pp. 22~39.

며⁸²⁾, 호찌민, 하이퐁, 껀닌, 다낭, 바리아 붕타우 등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바다와 접하고 있다. 베트남 연안 지역은 아름다운 경관과 산 호초, 맹그로브숲 등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많은 섬이 분포하고 있어 해양관광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베트남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의 해양 총생산은 2,893.8만 달러(약 328억 원)로 국가 GDP의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양관광업 규모는 545.5만 달러(약 62억 원)로 전체 해양 총생산의 18.9%를 차지해 해양석유 및 가스산업 다음으로 총생산액이 많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3-20〉 베트남의 부문별 해양총생산 규모(2015년)

구분	총생산액 (백만 달러)	비중
어업 및 양식업	3.701	12.8%
해양석유 및 가스산업	12.809	44.3%
제조업	5.224	18.1%
수산물 가공업	3.192	61.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2.032	38.9%
항만 및 물류산업	1.816	6.3%
해양관광업	5.455	18.9%
구조서비스업	0.18	0.6%
해양과학연구 및 교육서비스업	0.013	0.0%
기타 해양 관련 서비스업 (해도작업, 모니터링, 컨설팅, 해상보험 등)	0.46	1.6%
해양총생산	28.938	100.0%
국가 GDP 중 비중(%)	18.8	
해양산업의 고용자 수(백만 명)	3.0	

자료: Nguyen Hoang Ha, 'Viet Nam's marine industries: Current state and perspectives', *The East Asian Seas Congress 2015*, 발표자료, p. 7.

82) Nguyen Hoang Ha, op.cit., p. 4.

〈그림 3-2〉 베트남의 주요 관광자원 분포 현황



자료: 베트남 남동성 정부, <http://www.lamdong.gov.vn/EN-US/A/FESTIVAL2013/WORLD-HERITAGE-IN-VIETNAM/Pages/default.aspx>(검색일: 2018.10.4.)

2. 해양관광지 사례 분석 : 다낭

1) 대상지 개요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총 63개로 58개의 성과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의 5개 특별시로 이루어진다. 특별시 중 하나인 다낭은 베트남 제4의 도시이자 뛰어난 경관을 갖춘 해양휴양도시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다낭은 베트남전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군 병력이 최초로 상륙한 곳이자 미 해군이 이용하던 주요 항구였으나, 지금은 베트남의 주요 해양관광지이다. 다낭의 면적은 1,285km²로 수도인 하노이의 약 3분의 1 정도 크기이며,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101만 명 수준이다.⁸³⁾ 우리나라의 경주시와 비슷한 넓이(1,324km²)지만 인구는 4배 정도 많다.⁸⁴⁾

다낭은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수산업 중심의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2·3차 산업을 육성 중이다.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은 다낭의 경제성장률은 9.04%에 달해 베트남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다.⁸⁵⁾ 2016년 기준 베트남 전체 경제성장률이 6.21%인데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다낭은 베트남과 인근에 위치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이 협력하여 건설 중인 '동서 4개국 횡단도로망 구축 계획'에 따라 베트남 중부의 교통 및 경제 중심지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⁸⁶⁾ 중앙 정부는 최근 GDP의 10% 정도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투자하고

83)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국가정보」, 2016,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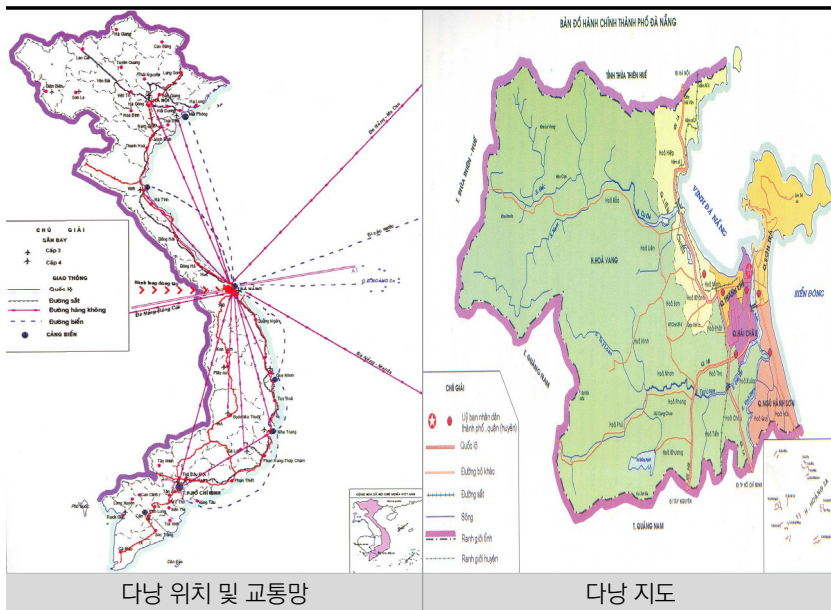
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18.10.22.)

85)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6&locations=VN&start=1985&year_high_desc=false; <http://apecceosummit2017.com.vn/general-information/about-da-nang> (검색일: 2018.10.23.)

86)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국가정보」, 2016., pp. 11~12.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용해 도로망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다낭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도로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낭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높아져 베트남의 특징적인 관광상품인 버스투어⁸⁷⁾ 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 3-3〉 다낭 위치



자료: 베트남 다낭시 정부, https://danang.gov.vn/web/guest/gioi-thieu/chi-tiet?id=4544&_c=37; Worldmap, <https://pasarelapr.com/detail/danang-maps-22.html>(검색일: 2018.10.24.)

87) 베트남은 육로 교통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버스를 이용한 관광 및 이동 서비스 시스템임. The Sinh Tourist사의 오픈투어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베트남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각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를 매일 1~2회 운행함. 오픈투어 버스 노선을 따라 남부에서 북부까지 원하는 일정에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요금도 저렴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음

2) 관광 여건 및 현황

연안지역에 위치한 다낭은 아름다운 해변경관으로 유명하며 포브스지에서 뽑은 세계의 매력적인 해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⁸⁸⁾ 2015년 다낭을 찾은 관광객은 외국인 125만 명, 내국인 335만 명 등 총 460만 명으로 전년대비 20.5% 급성장했는데⁸⁹⁾, 2017년 9월 기준 다낭을 방문한 관광객은 500만 명으로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⁹⁰⁾

다낭의 우수한 해양경관자원을 이용하여 숙박 및 관광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외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해변을 따라 해외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⁹¹⁾ 기존에는 하노이, 호찌민 등 도시 관광지에 대한 인기가 높았으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의 투자가 대도시보다 다낭, 냐짱, 푸꾸옥섬 등 연안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일례로 2015년 기준 베트남 전국의 5성급 호텔의 객실 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 중 30%가 다낭, 냐짱, 푸꾸옥섬 3개 지역에 조성되었을 정도로 연안지역에

88) 베트남 관광청, <http://www.vietnamtourism.com/en/index.php/news/items/12367>(검색일: 2018.10.8.)

89)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1859&column=title&search=%EA%B4%80%EA%B4%91&searchAreaCd=10006&searchNationCd=101084&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Idx=&page=1&row=100>(검색일: 2018.10.8.)

90)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047764&memberNo=35002835&vType=VERTICAL>(검색일: 2018.10.24.)

91)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dataIdx=151859&column=title&search=%EA%B4%80%EA%B4%91&searchAreaCd=10006&searchNationCd=101084&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Idx=&page=1&row=100>(검색일: 2018.10.8.)

대한 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현재 다낭에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베트남 국내 및 해외 23개 항공사가 정기 직항노선을 운영하는 등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항공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항공을 이용해 다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낭의 숙박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2015년 기준 다낭 내 3~5성급 숙박 시설은 73개소인데, 다낭 지역 내 5성급 숙박 시설은 모두 해변에 위치한 리조트 호텔 형태이다. 총 객실 수는 8,485개이며, 2015년 기준 객실 점유율은 67%를 기록했다.⁹²⁾ 한편 다낭은 베트남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2018년 베트남 크루즈선 기항 횟수는 총 493회였는데 그 중 다낭에 기항한 횟수가 베트남 전역의 기항지 중 최고인 159회(32.3%)로 크루즈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⁹³⁾

베트남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높고 국내의 관광수요도 높아 향후 베트남의 관광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다낭, 하롱베이, 나트랑 등 연안지역 주요 도시를 해양관광 허브로 개발하는 한편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⁹⁴⁾ 다낭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우수한 해양경관자원과 세계문화유산을 비

92)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h,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4249&column=title&search=%EA%B4%80%EA%B4%91&searchAreaCd=10006&searchNationCd=101084&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Idx=&page=1&row=100>(검색일: 2018.10.8.)

93) CLIA, 「Asia Cruise Trends 2018」, 2018.7., pp. 22~39.

94) 베트남 관광청, <http://www.vietnamtourism.com/en/index.php/news/items/12367>(검색일: 2018.10.8.)

롯한 각종 유적지 등 개발되지 않은 다양한 관광자원이 남아 있다. 다낭시 정부도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낭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이 부동산 및 관광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2017년까지 다낭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총 31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60.2%가 부동산 및 관광산업에 투자되어 다낭의 관광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⁹⁵⁾

3.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낭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지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북한과 지리적·경제적·환경적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사회문화적·감정적으로 유사한 점도 많다. 또한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 및 공산당 1당제를 채택하면서도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북한에 원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사례지로 선택한 다낭 지역은 개발 역사가 길지 않아 아직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고 SOC 구축이 미흡해 북한의 인프라 구축 여건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 과정에의 민간 부문 참여와 투자 유치, 외래 관광객 유치 사례, 관광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 노력 등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다낭에는 크루즈 선박 접안이 가능한 대형 항만이 있고 인근 국가들과 연계한 크루즈 항로를 운영하고 있어 북한 동부 지역에 참고할 만하다. 다낭의 관광산업적 측면에서의 강점과 약점, 기회

95) 베트남 외국인투자정보, <http://fdi-vietnam.com/foreign-investment-activities-in-vietnam/da-nang-attracts-nearly-us112-million-in-fdi-in-2017.html>(검색일 : 2018.10.23.)

와 위기 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1〉 다낭 관광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기회(Opportunity)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배후 소비시장 • 아름다운 자연환경 • 세계문화유산 다수 존재 • 풍부하고 특색 있는 해양문화 • 크루즈선박 접안이 가능한 대형 항만 • 낮은 인건비의 풍부한 노동력 •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및 규제 완화 • 정부의 지속적인 SOC 구축 프로젝트 추진 • 풍부하고 특색있는 음식	• 연안지역 휴양에 대한 수요 증가 • 육상, 해상, 항공 교통 접근성 개선 • 거대한 시장 잠재력 및 소비력 • 크루즈관광산업 성장 • 다낭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 관광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집중 • 연안지역 리조트 및 숙박시설 건설 붐
위협(Threat)	약점(Weakness)
• 경쟁격화로 이윤 하락 • 관광객의 대량 유입으로 환경오염 발생 • 주민의 소극적 관광업 참여	• 낮은 도시건설수준 •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부족 • 관광 관련 산업 발달 수준 낮음 • 관광서비스 분야 숙련 인력 부족 • 전문인력 양성 기반 미약 • 환경보호의식 부족 • 효율적이지 못한 공공교통 • 계절적인 제약

자료: 연구자 작성

앞서 살펴본 내용과 다낭이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적 강점과 약점, 기회, 위기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중앙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 수립과 다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투자된 자금 중 높은 비중을 SOC 확충 및 관광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둘째, 다낭은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중부 연안 13개 성·시(%)의 중심이며, 인근의 미얀마, 태국, 라오

스 등과도 접근성이 좋아 이들 지역의 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이 배후에 있어 해양관광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다낭은 연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외에 인근 내륙지역에는 베트남 특유의 사회문화적인 특색을 반영한 유산이 많이 남아 있어 연계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넷째,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다섯째, 물가가 저렴하고 인건비가 저렴해 관광 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 확충이 용이하다. 아울러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많아 교육을 통한 관광 서비스 인력 공급이 원활하다.

96) 다낭, 꽝찌, 트어티엔후에, 꽝남, 꽝응아이, 꼰툼, 자라이, 빈딩, 닥락성, 푸옌, 닥농, 타인화, 럼동 등

제 4 장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검토

제1절 조사개요

북한 동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연구대상지의 해양관광 개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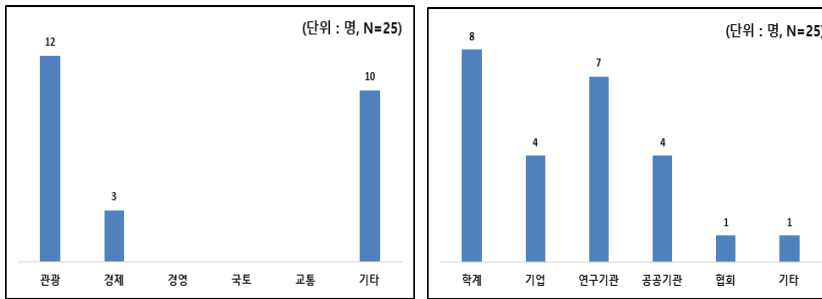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북한·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총 3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5명이 회신했다. 북한 동해안의 관광자원과 주요 교통수단, 해양관광의 개념과 유형 등을 기초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 동해 해양관광의 특성, 필요성, 기본 방향 등과 연구대상지의 우선순위 및 해양관광유형, 목표고객과 정책사업, 자원조달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의 절반인 12명은 관광, 나머지 13명은 북한 또는 해양 분야의 전문가였다. 학계(8명)와 연구기관(7명)이 가장 많고 기업(4명)과 공공기관(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개요

구분	설명
설문시기	2018년 10월 15일 ~ 10월 24일
설문대상	북한 전문가, 관광 전문가 37명 (회신 25명)
설문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배포·회수
설문내용	북한 동해 해양관광의 특성·필요성·기본방향 연구대상지의 우선순위·해양관광유형 목표고객, 정책사업, 자원조달, 기대효과

〈그림 4-1〉 조사대상자 현황



제2절 조사결과

1. SWOT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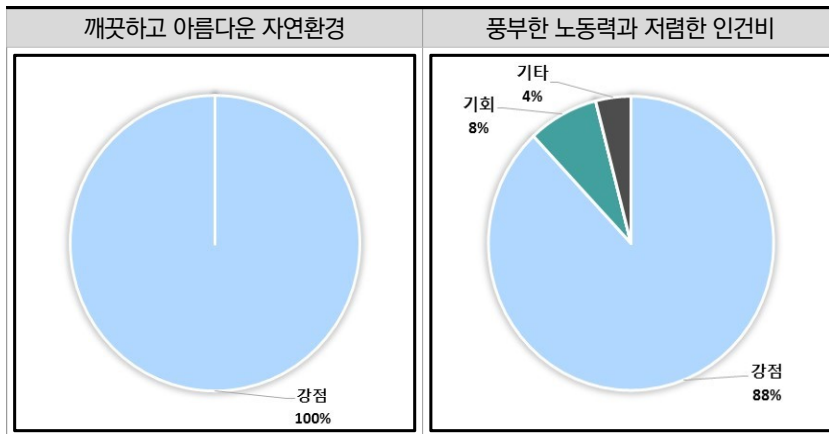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과 관련된 20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직접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20가지 요소에 대해 많은 응답을 받은 쪽에 배치한 결과, 강점이 2가지, 기회가 6가지, 약점이 6가지, 위협이 4가지, 기타 2가지로 구분되었다. 기타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많은 항목이다. 각 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관광 개발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강점, 기회, 약점, 위협의 순으로 검토한다.

1) 강점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강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가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특히 자연환경은 전문가 25명 모두가 강점으로 인정했다. 다음으로 노동력과 인건비의 강점은 88%가 강점으로 보았다.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인건비의 강점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림 4-2〉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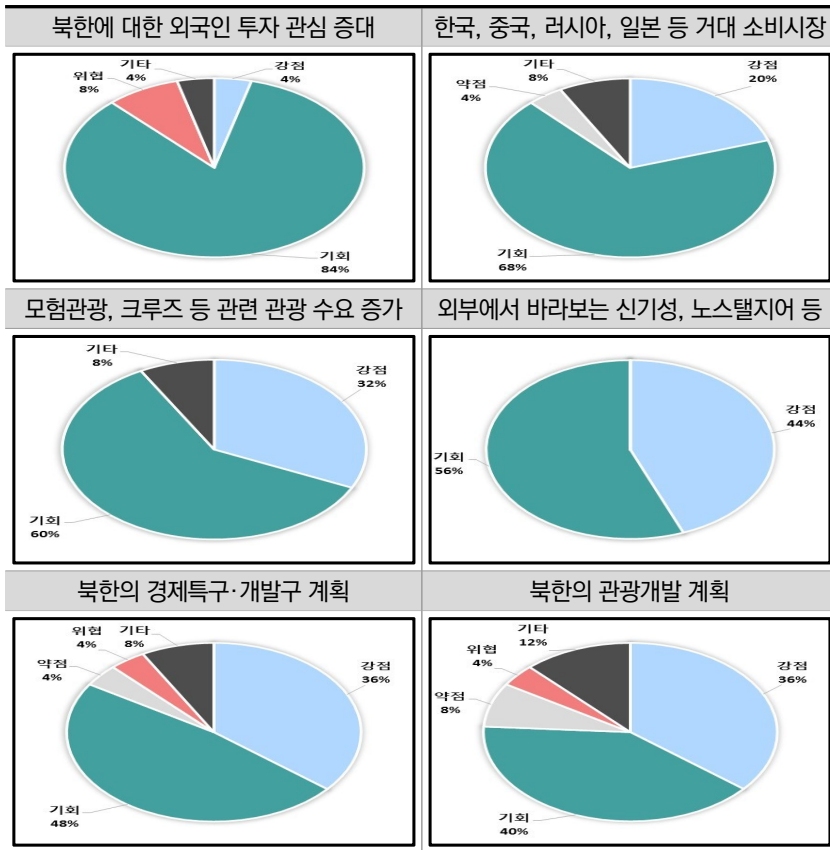


2) 기회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요소는 ‘외국인 투자

관심 증대'(84%), '한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거대 소비시장'(68%), '모험관광·크루즈 등 관련 관광 수요 증가'(60%), '외부에서 바라보는 신기성, 노스텔지어 등'(56%),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계획'(48%), '북한의 관광개발 계획'(40%)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관심 증대는 대부분이 기회로 인정했다. 나머지 5가지 요소는 강점으로 보는 견해도 많았다. 특히 외부에서 바라보는 신기성이나 노스텔지어는 기회인 동시에 강점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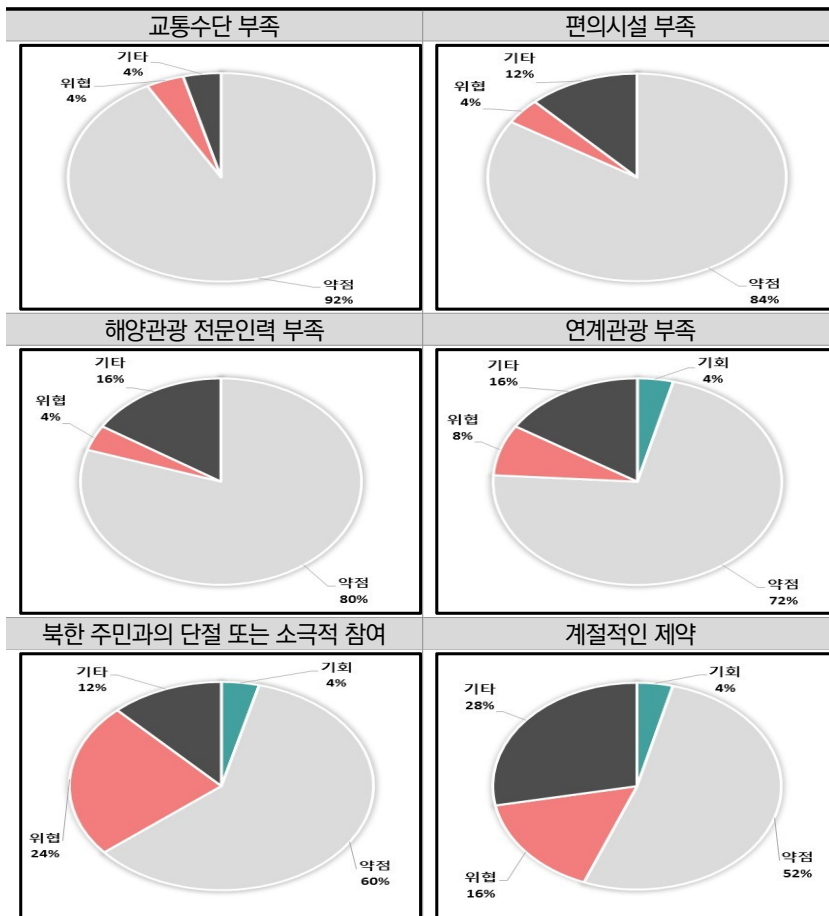
〈그림 4-3〉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회



3) 약점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 시 약점은 ‘교통수단 부족’(92%), ‘편의시설 부족’(84%), ‘해양관광 전문인력 부족’(80%), ‘연계관광 부족’(72%), ‘북한 주민과의 단절 또는 소극적 참여’(60%), ‘계절적인 제약’(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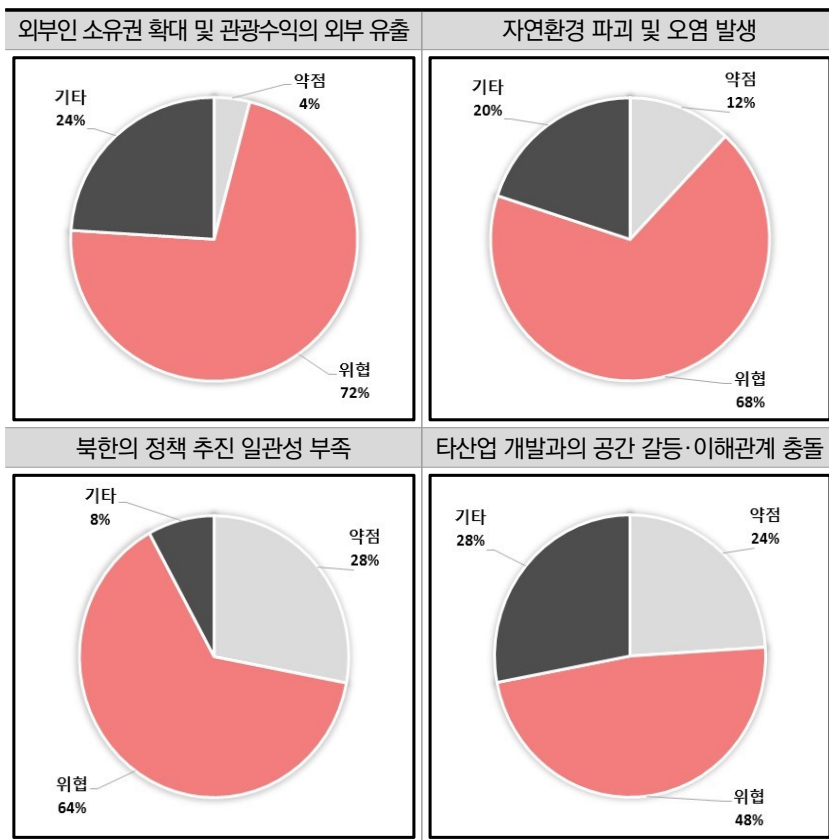
〈그림 4-4〉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약점



4) 위협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에 대한 위협 요소는 ‘외부인 소유권 확대 및 관광수익의 외부 유출’(72%), ‘자연환경 파괴 및 오염 발생’(68%), ‘북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64%), ‘타산업 개발과의 공간 갈등·이해관계 충돌’(48%)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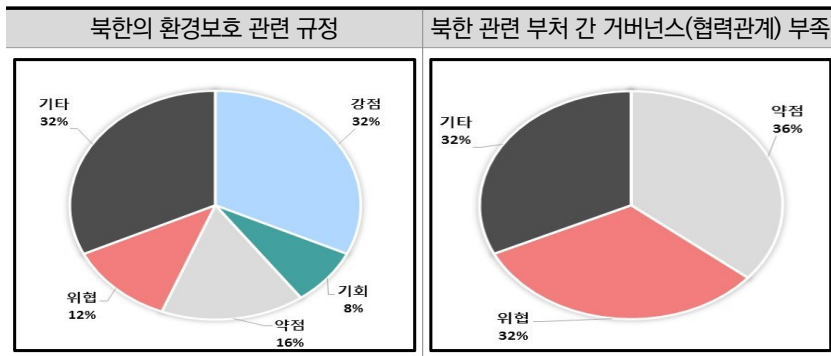


5) 기타

‘북한의 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한편으로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에 강점으로 고려되면서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각각 32%). 약점이나 위협, 기회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 이는 환경보호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것이 관광산업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로 보인다. 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대규모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강점, 약점, 위협, 기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관련 부처 간 거버넌스(협력관계) 부족’은 약점으로 보는 견해(36%)가 가장 많았지만 위협(32%)이라거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32%)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에는 한국처럼 해양수산 부처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 육해운성, 수산성, 국토환경보호성 등에 담당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대체적으로는 약점 또는 위협이라는 의견이 많아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된다.

〈그림 4-6〉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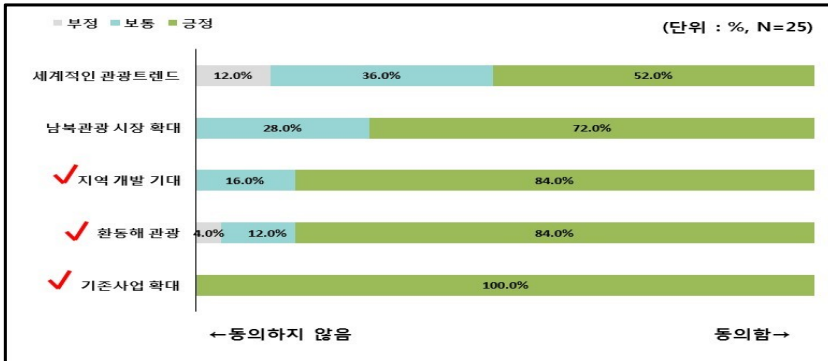
2. 필요성, 기본방향, 시급한 요소

1) 필요성

전문가들은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필요성에 대해 ‘금강산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면서 동해 지역의 관광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에 100%에 동의했다. 다음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 관광으로의 확장성이 높기 때문’, ‘동해안 연안의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계획과 연계한 인프라, 편의시설 등 지역 개발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데 각각 84%가 동의했다. ‘국내 해양관광 수요와 관심 증가를 반영하여 남북관광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데는 72%가 동의했다.

요약하면,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은 기존 남북협력 사업의 확대와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을 배경으로 환동해 관광의 확장성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체 관광에서 늘어나고 있는 해양관광의 비중을 남북관광 시장에서도 구현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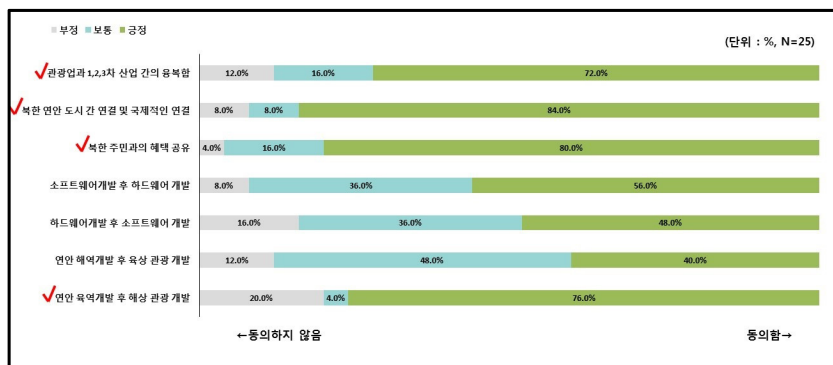


그 외에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 성장의 기회와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의 편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장기 체류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원산에 대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남북연계 관광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해공동관광특구는 원산, 칠보산 등 지역이 한정되어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개발구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2) 기본방향

북한 동해에서 해양관광을 개발할 때 적합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북한 연안 도시 간 연결 및 국제적인 연결’에 대해 84%로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 주민과의 혜택 공유’는 80%가 동의했다. 즉,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본방향은 특정 지역을 단절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북한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도시와도 연결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8〉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본방향



다음으로 ‘연안 육역(리조트, 어촌) 개발 후 해상 개발’에 대해 76%, ‘관광업과 1,2,3차 산업 간의 융복합’에 대해 72%가 동의했다. 연안 육상 지역을 개발해나가면서 관광업을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이루어 나간 후에 바다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상 이 문항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vs 하드웨어 개발’, ‘연안 육상관광 개발 vs 연안 해상관광 개발’에 관한 우선순위 판단을 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 선(先) 소프트웨어 개발(56%)이 선(先) 하드웨어 개발(48%)보다는 더 많은 동의를 얻었다. 선(先) 연안 육상관광 개발(76%)이 선(先) 연안 해상관광 개발(40%)보다 훨씬 더 많은 동의를 얻었다.

흥미로운 것은 먼저 개발해야 할 것이 하드웨어(관광 인프라)인지 소프트웨어(상품·프로그램)인지에 대해 응답을 보류(각각 “보통” 36%)한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선(先) 연안 육상관광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많은 동의를 얻었지만,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기도 했다.

한 가지 해석은 해양관광 개발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육역보다는 해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연안 육역개발의 사례로 리조트, 어촌을 제시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연안 육역·연안 해역은 상황에 따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타 국가의 관광지역 개발과 달리 미래지향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단일지역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거점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방식(hub and spoke)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북한 연계관광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다층적인 투자주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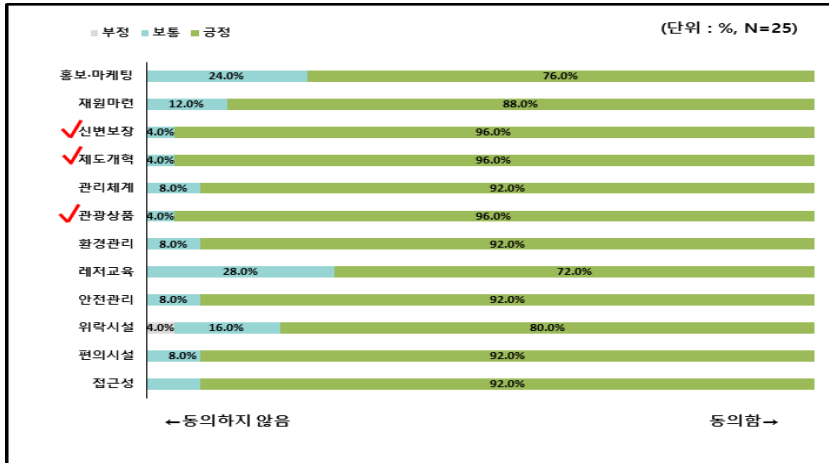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북한식의 해양관광을 국제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콘셉트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콘셉트, 예컨대 사회주의 해양 생태관광 등이었다.

3) 시급히 준비해야할 요소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신변보장, 제도개혁, 관광상품이 96%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다음으로 관리체계, 환경관리, 안전관리, 편의시설, 접근성이 92%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신변보장과 접근성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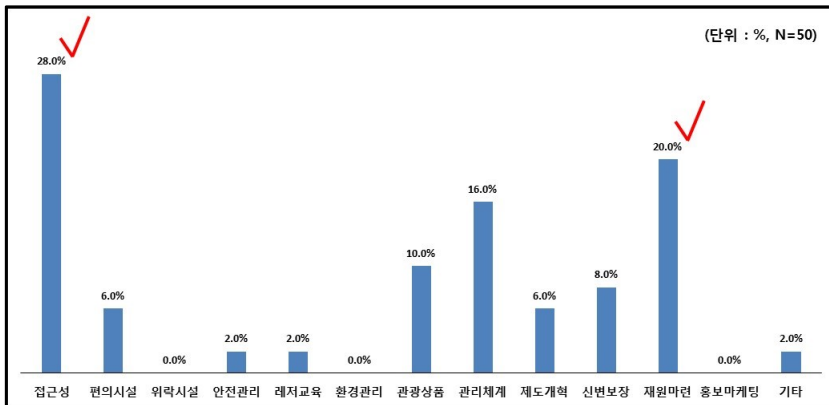
요컨대, 관광객의 희생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만큼 신변보장이 향후 관광재개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간소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관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양관광은 내륙관광에 비해 활동범위나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를 조정하고 홍보하고 자문하는 기구 등의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연안침식·수질·폐기물 등 환경관리도 중요할 것이다. 기존의 남북관광은 한정된 지역에서 획일화된 관광상품이 운영된 반면 향후에는 해양관광을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요소



이 중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두 개만 골라달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접근성(28%), 재원마련(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통수단 개발을 통한 접근성 개선, 재정확보와 투자유치를 통한 재원마련에서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림 4-10〉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그 외에도 제대로 된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 국내외 시장 조사, 투자의 안정성 확보, 대북 비즈니스 문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북협력의 당위성에 따라 정책 드라이브만 걸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에서 냉철한 조사와 분석, 비즈니스 마인드가 요구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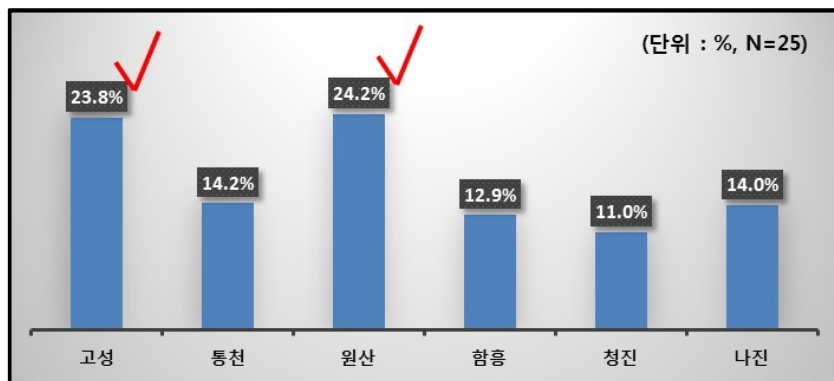
3. 대상지 개발 방향

1) 대상지 우선순위

연구대상지인 고성, 통천, 원산, 함흥, 청진, 나선(나진)⁹⁷⁾ 6곳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원산(24.2%), 고성(23.8%), 통천(14.2%), 나진(14%), 함흥(12.9%), 청진(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금강산관광 지역인 고성보다 원산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로 확장하고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원산이 북한 당국의 최대 관심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과 통천이 금강산지구로 묶이는 점을 감안하면 금강산지구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97) 나선은 나진과 선봉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북한의 경제개발대상지는 나선 전체이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이 집중된 곳이 나진 구역이어서 설문에서는 나진을 제시했다.

〈그림 4-11〉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 대상지의 우선순위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주로 접근성과 개방성을 기준으로 했다. 접근성은 한국, 평양, 중국·러시아와의 거리와 교통수단, 기존 인프라 등이었다. 개방성은 북한의 개발계획 등 제도적 여건, 북한이 개방을 수용할 만한 기존의 무역 지역 등이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인지도나 자원성, 연계 관광여건이 고려되었다. 특히 관광객 상당수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의 접근성, 남북 양측의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성, 통천, 원산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이 크루즈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함흥, 청진, 나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진, 나진은 중장기적으로 중국·러시아와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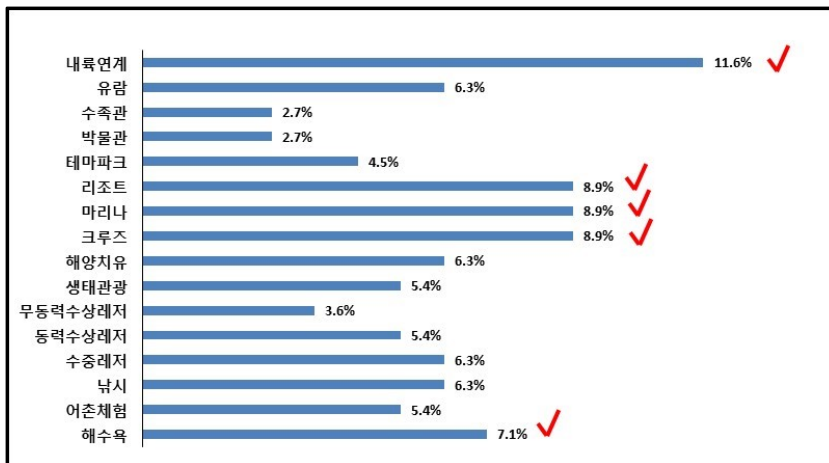
해양관광 관점에서는 위도, 수온 등 계절적인 영향, 크루즈선 크기의 정박가능성 등이 고려되었다. 해양관광만 구분해서 본다면 고성 원산과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성은 금강산관광과 연계하기가 용이하고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통천, 원산, 함흥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2) 고성 지역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고성의 특성을 살린 상품개발에 필요한 관광유형은 명산(名山)과 같은 내륙을 연계한 관광(11.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근의 금강산과 연계한 관광이 고성의 핵심 테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외에는 리조트·마리나·크루즈(각 8.9%)와 해수욕(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강산을 방문하러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변에 리조트와 마리나를 조성하고 해수욕 등 해양휴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2〉 고성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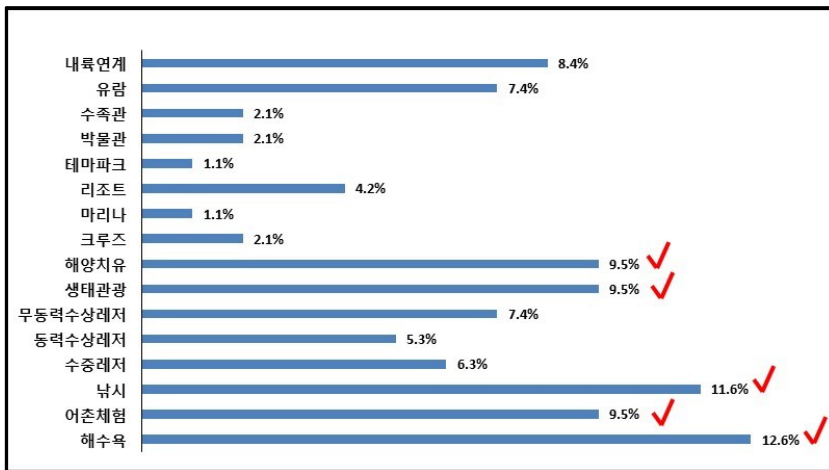
3) 통천 지역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통천의 특성을 살린 상품개발에 필요한 관광유형은 해수욕(12.6%)과 낚시(11.6%), 해양치유·생태관광·어촌체험(각각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내륙연계(8.4%), 유람·무동력수상레저(각각 7.4%)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통천은 북한의 개발계획상 시중호 지구에 해수욕장구역이 구상되어 있고 머드를 이용한 치료기지도 구상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과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관광이 기대된다. 시중호와 장재늪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3〉 통천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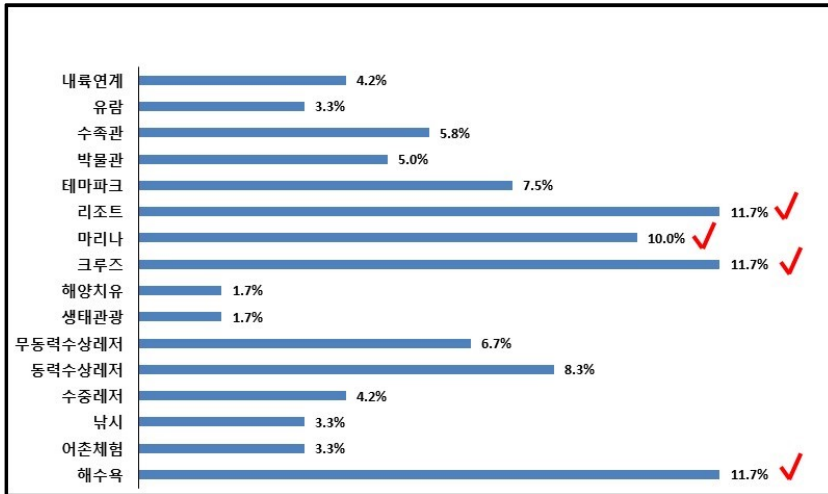


4) 원산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원산의 특성을 살린 상품개발에 필요한 관광유형은 해수욕·리조트·크루즈(각각 11.7%)와 마리나(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동력수상레저(8.3%)와 테마파크(7.5%) 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강산 인근의 고성처럼 한국인의 방문 및 관광발전 전망이 높아 리조트·크루즈·마리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계획을 고려할 때 동력수상레저와 테마파크 개발도 유리해 보인다.

〈그림 4-14〉 원산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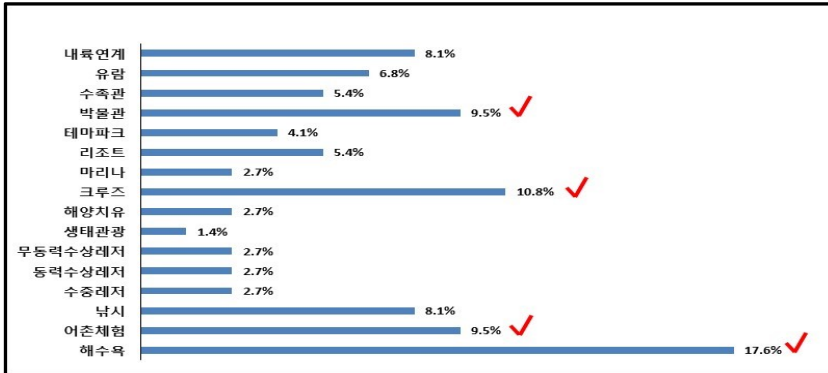


5) 함흥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함흥의 특성을 살린 상품개발에 필요한 관광유형은 해수욕(17.6%)이 가장 높고 크루즈(10.8%), 박물관·어촌체험(각각 9.5%), 내륙연계·낚시(각각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전해수욕장이 이미 유명한 휴양지이므로 이를 활용한 해수욕이 활성화되고 크루즈 운영 시 기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흥남철수작전과 같은 역사적 배경, 산업적 특성을 살린 박물관 건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함흥차사, 흥남부두, 북청물장수 등 함흥에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또한 부전고원 등 내륙연계 관광상품도 가능하다.

〈그림 4-15〉 함흥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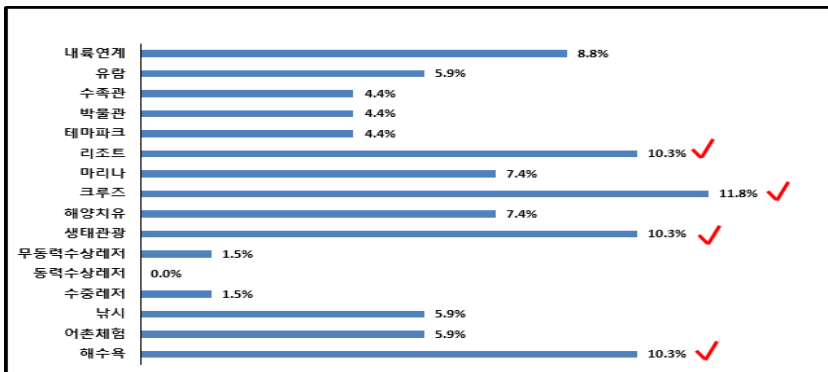


6) 청진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청진의 특성을 살린 상품개발에 필요한 관광유형은 크루즈(11.8%), 해수욕·리조트·생태관광(10.3%), 내륙연계(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진항을 활용한 크루즈 노선 개발, 칠보산과 연계한 생태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6〉 청진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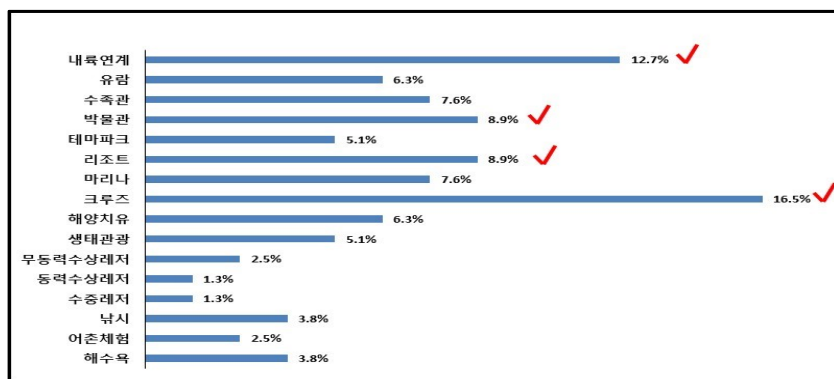


7) 나진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나진의 특성을 살린 상품개발에 필요한 관광유형은 크루즈(16.5%), 내륙연계(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박물관·리조트(각각 8.9%), 수족관·마리나(각각 7.6%)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나진의 지리적 특성상 크루즈관광이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만강을 끼고 있는 북·중·러 3국 접경지역의 내륙관광과 연계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크루즈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박물관, 수족관 등의 문화시설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7〉 나진의 해양관광유형 및 상품

(중복응답)



4. 추진시기 및 목표고객

1) 추진 예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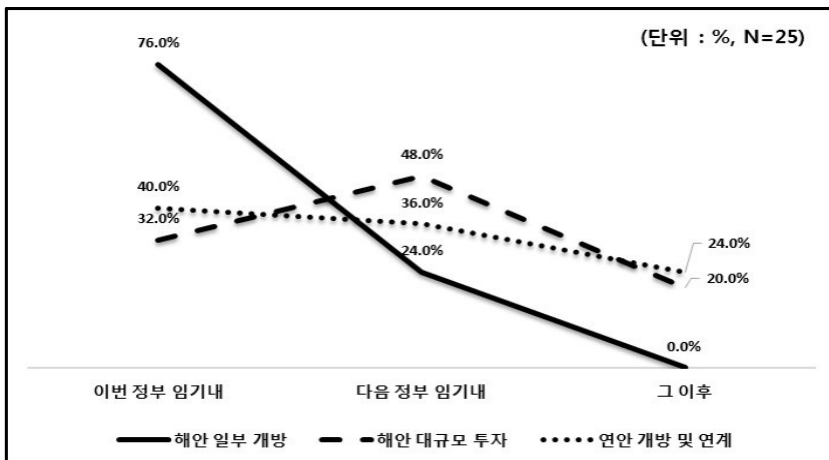
상기와 같은 해양관광 개발이 추진될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임기 내, 다음 정부 임기 내, 그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질문했다.

전문가의 대다수는 해수욕, 낚시, 생태관광, 수상·수중레저 등으로 해안을 일부 개방하는 것이 이번 정부 임기 내 가능하다(76%)고 보았다. 다음 정부 임기 내(24%)까지 포함하면 해안 일부 개방은 10년 내 이루어진다고 전망했다.

크루즈, 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 등 해안 대규모 투자는 이번 정부 임기 내(32%)보다는 다음 정부 임기 내(48%) 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그 이후(20%)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비핵화 검증과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 대규모 건설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어촌체험과 연안-내륙 관광 연계는 이번 정부 임기 내(40%) 또는 다음 정부 임기 내(36%)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24%)도 대규모 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어촌이나 연안을 개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8〉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 추진 예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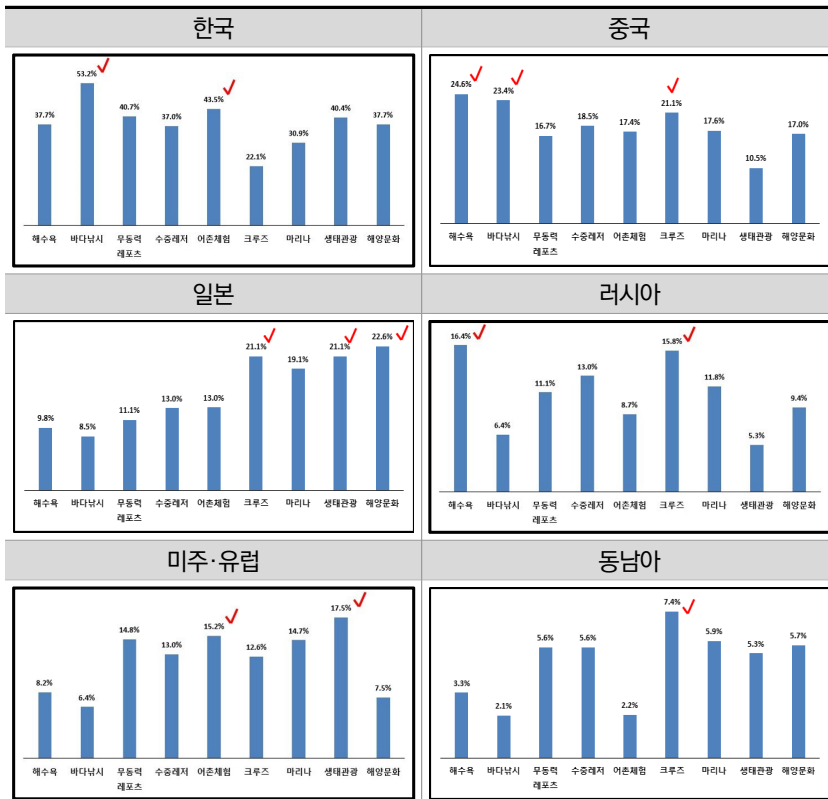


2) 해양관광 분야별 목표고객

북한 동해 해양관광 분야별 목표고객은 대표적인 해양관광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보기로 제시한 9가지 유형 모두에서 한국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바다낚시가 가장 높고 크루즈는 가장 낮았다. 국내 해양관광 유형은 해수욕이 가장 높은 반면 북한 관광 시에는 어촌체험, 무동력레포츠, 생태관광 등의 유형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그림 4-19〉 목표고객 국적별 해양관광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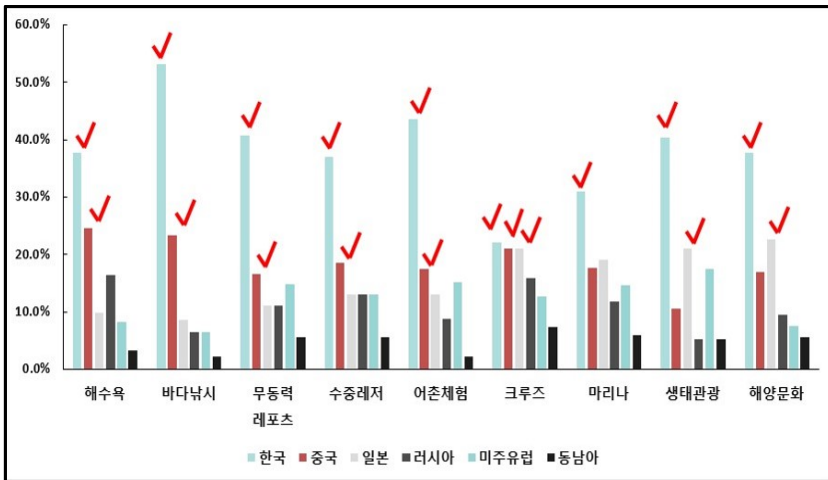


주: 각 해양관광유형을 100%로 두고 그 속에서 각 국적별 목표고객의 비중

중국인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한국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해수욕, 바다낚시, 크루즈의 유형이 타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은 해양문화, 생태관광, 크루즈의 유형이 타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해수욕과 크루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중레저, 마리나 등의 목표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유럽은 생태관광, 어촌체험, 무동력레포츠, 마리나 등의 목표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는 전반적으로 볼 때 타당한 해양관광유형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는 그나마 크루즈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레포츠, 동계 시즌 체험, 레포츠 관광, 북한 문화체험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각국의 관광발전 수준과 관심사, 북한 동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매력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20〉 해양관광 분야별 목표고객

(중복응답)



5. 준비사항 및 재원조달

1) 한국이 준비할 정책이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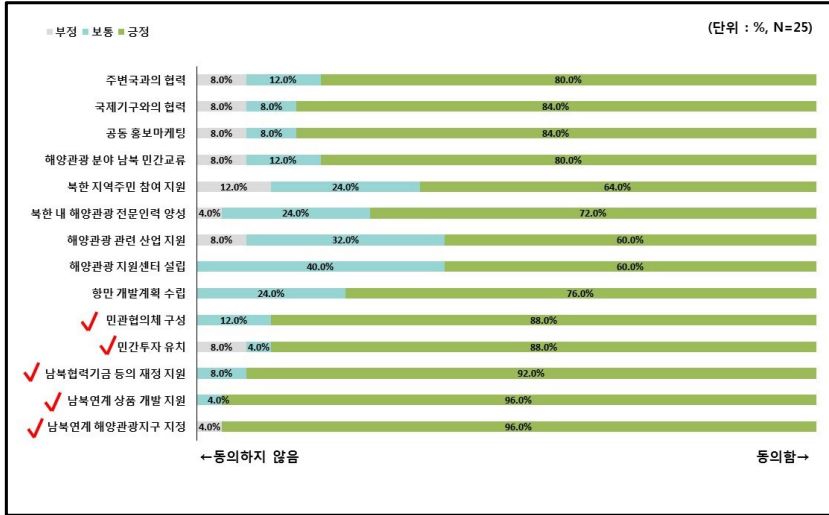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한국이 준비할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남북연계 상품 개발지원·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각각 9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남북관광은 북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방문하는 형태를 보였지만 향후에는 남북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정지원(92%), 민관협의체 구성·민간투자 유치(각각 88%)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과 재원마련에서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주요 인프라와 교통수단은 정부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실제적인 협력사업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공동 홍보마케팅(각각 84%)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연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남북한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외 주변국과의 협력과 해양관광 분야 남북 민간교류(각각 80%)의 필요성도 높았다. 관광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것이고 역내(regional)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관광 분야는 남북관광에서 다소 새로운 요소이므로 요트,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행사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1〉 한국이 준비할 정책이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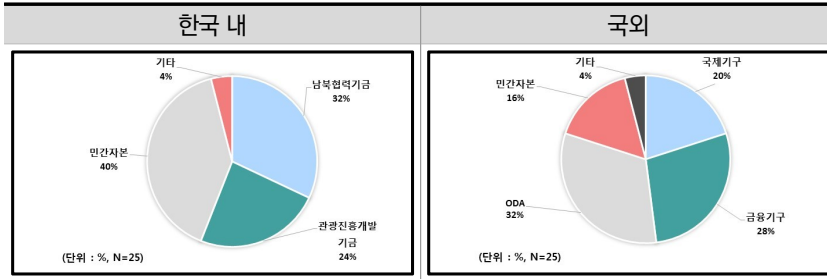
2) 자원조달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에 가장 필요한 자원조달은 한국 내 자원조달과 국외 자원조달을 구분하여 질문했다.

한국 내 자원조달은 민간자본(40%), 남북협력기금(32%), 관광진흥개발기금(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사업 특성상 민간자본의 투자는 기본이지만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정부재원 역시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는 그동안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활용도 적극 고려할 것을 시사한다.

국외 자원조달은 ODA(32%), 금융기구(28%), 국제기구(20%), 민간자본(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와 금융기구의 자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2〉 재원조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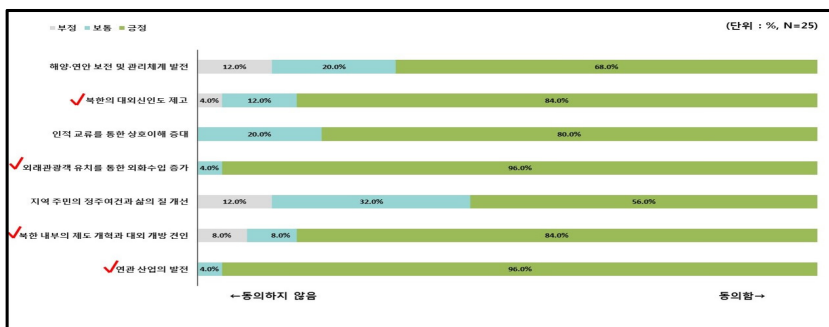


6. 기대효과 및 종합의견

1) 기대효과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대효과는 교통·운수, 음식·숙박 등 연관 산업의 발전과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 증가(각각 96%)가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북한 내부의 제도 개혁과 대외 개방 견인(각각 84%)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증대(80%), 해양·연안 보전 및 관리체계 발전(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56%)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3〉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기대효과



2) 종합의견

전문가들은 연구대상지에 대해 기존에 언급된 사업만 진행하더라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급된 지역을 개발한 후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개발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거점형 관광개발을 통해 해양관광시설과 콘텐츠를 육성하면서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관광지 개발보다는 주요 거점 관광지역의 역사성 등 특징을 반영한 상징물이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처럼 주요 거점 지역을 연결한 벨트형 접근도 제시되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해양휴양·유람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륙관광과 연계한 종합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계한 관광루트가 개발되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성-원산 지역의 해양엑스포 개최를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관광목표고객에 대해서는 남북연계 관광을 감안해 한국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되 크루즈의 경우 동북아 크루즈상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인프라 연결이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천이나 송도원 등 북한 주민이 현재 이용하는 해수욕장 인근에도 관광산업이 개발되어 북한 주민이 게스트이자 호스트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관광사업 추진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서둘러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연구로 기본적인 밑바탕을 제대로 구상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교류가 단절되어 남북한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율에 나가는 사전작업도 필요하다. 보전과 개발을 고려한 관광지 개발은 기본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유지하며 생태계의 지속성과 지역 주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통일 이후의 해양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부의 국토·관광 개발 계획은 물론 현행 북한 법령 중 해운법, 항만법, 건설법, 경제개발구법, 외국인국제법 등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해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객과 사업자 등에 대한 신변보장과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등 남북한 정부 간의 체계와 제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외에도 북한 관광산업 관련 최신 정보의 수집과 구축, 국내 지자체별 특성과 연계한 관광협력사업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해양관광 자원현황이나 정책, 법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 수집과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입지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 자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광유형이나 상품으로는 국제적인 전시관, 지역별 수산물물품을 비롯한 특산물과 전통음식, 쇼핑과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 5 장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구상

제1절 기본구상

1. 기본방향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70% 이상이 동의한 기본방향은 북한 연안 도시 간·국제적 연결, 북한 주민과의 혜택 공유, 연안 육역 개발 후 해상 관광 개발, 관광업과 다른 1·2·3차 산업 간의 융복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핵심 거점을 우선 개발하고 북한 동해뿐 아니라 남북한 연계관광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정리하여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1〉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1. 핵심 거점 개발 후 연안·국제 연결	2. 연안 육역 개발 후 해상 관광 개발
3. 관광업과 1·2·3차 산업의 융복합	4. 북한 주민과의 혜택 공유
5. 남북한 연계관광	

2. 비전

상기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국외사례 분석 결과를 적용하고자 한다. 중국 저우산 군도는 지역성 특성을 살린 6대 관광상품을 테마로 내세우고 ‘1핵 1축 2권 다도 연선’이라는 거점을 이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저우산 군도가 해양관광에 특화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 동해에도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주요 거점을 잇는 벨트형 구상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낭은 베트남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항공 접근성이 좋아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에도 항만, 항공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어 접근성이 높고 정부 주도와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교통·숙박·관광시설 투자가 용이한 지역이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우산군도와 다낭의 사례를 종합하여 6개 대상지를 이은 ‘북한 동해 해양관광벨트(가칭)’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환동해 벨트와 유사한 모양이지만 에너지·자원이 아닌 관광을 콘텐츠로 한 벨트이다. 이 벨트는 항만, 공항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향후 정책적 지원과 외국이 투자가 주목되는 ‘원산’을 핵심 거점으로 하고 고성과 통천을 이은 ‘원산-금강산 일대’

를 하나의 축으로 한다. 다음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나진’을 2차 거점으로 한다. 1차 거점인 원산은 ‘함흥’으로, 2차 거점인 나진은 ‘청진’으로 확장된다. 청진은 칠보산 관광이 본격화되면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계되어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주요 거점을 순차적으로 발전시켜 연계하면 동해 해양관광벨트가 구축된다.

〈표 5-2〉 북한 동해 해양관광벨트 구축(안)

구분	지역
1차 거점	원산
핵심 축	고성-통천-원산
2차 거점	나진
1차 거점 연계	원산-함흥
2차 거점 연계	나진-청진
동해 해양관광벨트	고성-통천-원산-함흥-청진-나진

〈그림 5-1〉 북한 동해 해양관광벨트 구상(안)



3. 단계적 목표

관광산업의 발전방향은 부가가치와 복합 정도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보통은 특별한 기술이나 투자 없이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시설 등이 복잡해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복합리조트, 크루즈관광 등은 부가가치가 높고 시설이나 테마가 복잡한 산업기반의 관광개발이다.

현재 북한은 부가가치나 시설의 복합도가 낮은 자연관광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등 일부 특색 있는 상품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 동해 해양관광의 단계적 개발 개요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 지역의 개방 정도와 추진 예상 시기를 구분했다. 다음으로, 연안 육역 개발부터 연안 해역 개발, 더 나아가 내륙 연계를 염두에 두고 3단계를 구분했다. 추진시기별로 각 단계에 가능한 해양관광유형을 정리했다. 이러한 해양관광활동 유형에 맞는 목표관광객도 제시했다. 한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연계 관광에서 시작해서 국제적인 연계, 더 나아가 북한 주민까지 관광대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단계적 개발 구분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하고 있다. 즉, 북한의 관광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유엔,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추진 가능하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전문가조사에서 제시한 개발 범위에 따라 해양관광활동을 배치했다.

향후 5년 내에는 북한 동해안 일부가 개방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 단계에는 개방된 해안 지대에서 해수욕, 바다낚시, 어촌체험, 생태관

광, 해양치유 등의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와 보트,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도 가능할 것이다. 전반적인 관광활동 여건이 조성되면 내륙관광과 연계하는 사업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주요 관광객은 한국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해안 지대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가정했다. 연안 지역의 리조트와 크루즈부두·터미널, 마리나 등의 건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관광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인 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등 다른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은 아직까지 개념적으로도 제안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관광개발은 통일 이후로 가정했지만 그 이전에라도 동해관광공동특구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거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의 단계적 개발 개요도를 보면 대부분의 해양관광활동은 해안 일부를 개방하기만 해도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투자가 필요한 관련 시설이 없지는 않겠지만, 여건이 마련될 경우 비교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관광활동이어서 북한 관광상품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북한 동해 해양관광의 단계적 개발 개요도

시기			5년 내	5년 이후	통일 이후	
범위			← 해안 일부 개방 →			
			← 해안 대규모 투자 →			
			← 내륙 연계 및 개방→			
단 계	1단계	Coastal	해수욕 바다낚시 어촌체험 생태관광 해양치유	리조트		
	2단계	Marine	무동력 수상레저 동력 수상레저 수중레저	크루즈 마리나		
	3단계	Inland	내륙연계			
목표관광객			한국인	외국인		북한 주민
				중국인	그 외	

제2절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1. 추진전략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분석한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SWOT분석에 따라 4가지 종류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점을 살려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SO), 강점을 살려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ST),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WO),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WT)이다.

〈표 5-4〉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종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강점 X 기회 전략 (공격적 전략)	약점 X 기회 전략 (우회 전략)
위협(Threat)	강점 X 위협 전략 (다각화 전략)	약점 X 위협 전략 (방어 전략)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회를 선점하는 공격 전략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북한 동해의 거점별 자연환경과 주변국 잠재고객이 느끼는 매력도를 연결시킨 관광 개발이다. 둘째,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저렴한 인건비의 강점을 외국인의 투자 관심, 북한의 특구개발계획 및 관광 개발계획과 접목시켜 해양관광 관련 건설·제조·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표 5-5〉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강점 X 기회 전략

강점	기회	강점 X 기회 전략
자연환경	모험·크루즈관광 수요 신기성·노스텔지어 거대 소비시장	거점별 자연·사회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노동력·인건비	외국인 투자 관심 증대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계획 북한의 관광개발 계획	해양관광 관련 건설·제조·서비스산업 육성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극복하는 우회 전략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개발이다. 자연환경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내세워 환경오염과 타산업과의 공간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아직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외부로의 수익 유출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북한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5-6〉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강점 X 위협 전략

강점	위협	강점 X 위협 전략
자연환경	환경오염 공간 갈등·이해관계 충돌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관광 원칙 견지
노동력·인건비	수익의 외부 유출 북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개발 기회를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만회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외부의 투자 관심 증대를 활용해 교통수단·편의시설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양관광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지역의 경제특구·관광개발 계획 추진을 계기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내륙 연계관광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주변국 목표고객별로 북한에 매력을 느끼는 요소와 관광의 취향을 반영하여 계절적 제약을 적절히 보완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점을 활용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표 5-7〉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약점 X 기회 전략

약점	기회	약점 X 기회 전략
교통수단 부족 편의시설 부족	외국인 투자 관심 증대	해양관광 접근성·편의성 제고
전문인력 부족 연계관광 부족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계획 북한의 관광개발 계획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
계절적 제약 북한 주민과의 단절	모험·크루즈관광 수요 신기성·노스텔지어, 거대 소비시장	목표고객별 해양관광상품 다양화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의 약점을 최소화하여 위협을 회피하는 방어 전략은 북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관광 개발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주도하겠지만 북한 주민의 참여는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방향이다. 현재 북한과 같은 수준의 개도국이나 지방의 관광개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밝히고 있다.⁹⁸⁾ 주민참여형 해양관광 개발은 외부인 소유권 확대 및 관광수익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공간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질수록 정책 추진의 방향이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8〉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약점 X 위협 전략

약점	위협	약점 X 위협 전략
북한 주민과의 단절 전문인력 부족	수익의 외부 유출 공간 갈등·이해관계 충돌 북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환경오염	주민참여형 해양관광 개발

상기와 같이 도출한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전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5-9〉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 전략 (종합)

추진전략	
1. 거점별 자연·사회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2. 해양관광 관련 건설·제조·서비스산업 육성
3.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관광 원칙 견지	4. 해양관광 접근성·편의성 제고
5.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	6. 목표고객별 해양관광상품 다양화
7. 주민참여형 해양관광 개발	

98) John Brohman, "New Directions in Tourism for Third World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3, No.1, pp. 59~61; Suzanne Wilson et. al. "Factors for Success in Rural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40, Nov. 2001, pp. 136~137.

2. 추진과제

1) 거점별 자연·사회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대상지별 타당한 해양관광유형의 상위 5가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고성, 통천, 함흥은 해수욕이 우세하고 청진, 나진은 크루즈가 우세한 편이다. 원산은 해수욕은 물론 크루즈도 우세하다.

〈표 5-10〉 거점별 해양관광유형·상품

유형/거점	고성	통천	원산	함흥	청진	나진
해수욕	①	①	①	①	②	
낚시		②		⑤		
어촌체험		③		③		
생태관광		③			②	
해양치유		③				
동력 수상레저			⑤			
박물관				③		③
수족관						⑤
리조트	②		①		②	③
크루즈	②		①	②	①	①
마리나	②		④			⑤
내륙연계	⑤			⑤	⑤	②

고성은 5년 내 해안 일부 개방 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해수욕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면 리조트, 크루즈, 마리나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남북한 동해 접경지역을 연계하여 방문하는 관광상품은 희소성과 매력을 더할 것이다.

통천은 해수욕, 낚시, 어촌체험, 생태관광, 해양치유 등 해안을 일부 개방하면 가능한 해양관광유형이 우세하다. 관련 관광코스과 상품을 개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은 해안 일부 개방 단계에서는 해수욕과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관광활동이 가능하고 해안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면 리조트, 크루즈, 마리나 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흥은 해안 일부 개방 단계에서 해수욕, 낚시, 어촌체험 등이 가능하다. 개마고원 등의 내륙 연계가 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상품 구성도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면 박물관과 크루즈 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진은 해안 일부 개방 단계에서 해수욕과 생태관광, 특히 칠보산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면 크루즈 접안과 리조트 개발이 가능하다.

나진은 내륙 연계 상품 외에는 대부분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해양관광유형이 적용된다. 박물관과 수족관, 리조트·크루즈·마리나 등이다.

2) 해양관광 관련 건설·제조·서비스산업 육성

해양관광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여건 형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크루즈가 접안하려면 부두, 터미널 등 관련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원산에 여객부두 건설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외부의 투자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항은 무역항으로서 입지가 훌륭하고 조선·화학 등의 생산기반도 있다. 기존 무역 기능의 부두와 관광 기능의 부두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항만 개발계획 수립이 필

요하다. 관광지 개발은 교통·전력·상하수도를 비롯해 전반적인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원산과 같은 해양관광 거점에 인력양성기관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크루즈관광 실태에서 보듯이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루즈선을 타고 온 관광객이 목적지에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관광활동과 소비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크루즈상품과 관광지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크루즈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와 전문서비스 개발이 필수적이다.

노동력과 인건비의 강점을 활용해 조선·선박수리, 해양레포츠 장비의 제조나 관련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한국이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인건비 경쟁으로 중국 등에 밀려난 산업분야의 재기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다낭 사례에서처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양관광 관련 제조·서비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중국 저우산군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이 음식·숙박업, 수산물·특산물 판매 등으로 관광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야 한다. 국제기구가 북한의 협동농장에 소액금융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업 분야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관광 원칙 견지

북한의 관광개발 의지와 외부의 투자 관심 증대에 따라 향후 북한은 많은 관심을 받는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 수요에 힘입어 해안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신속하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지역 주민이나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대내외

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하면서 이미 각국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가 북한에서 재발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바다와 연안의 관리를 담당하는 육해운성, 수산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관광총국 등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간에 또는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전문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가칭)’ 또는 ‘해양관광발전위원회(가칭)’ 등의 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양관광 개발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현안을 논의하면서 환경보호, 공간계획, 주민참여와 지역발전 등을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해양관광 접근성·편의성 제고

해양관광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과 편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교통수단과 편의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북한 내부에서 모두 충당하기 여의치 않으므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내 민간자본과 남북협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외에서는 ODA와 금융기구 등의 재원조달을 기대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인프라구축사업(가칭)’과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이 가능할 것이다. 이 사업에는 한반도 주변국이 참여할 의지가 높으므로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거점을 연결할 뿐 아니라 남북한의 거점을 연계하고 국제적인 연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

해양관광 전문인력이나 연계관광이 부족한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서는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또는 관광개발 계획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경제특구 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내륙관광과 해양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특구·개발구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원산 인근의 현동 공업개발구, 홍남공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는 관광 관련 자재나 부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홍남 인근의 북청농업개발구나 청진경제개발구 인근의 어랑농업개발구는 그 자체가 관광지역 혹은 관광코스로 개발될 수도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부투자자인 관광개발이 특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목표고객별 해양관광상품 다양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고객별 타당한 해양관광유형의 상위 5가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인은 바다낚시가 우세하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크루즈관광이 우세한 편이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나 앞서 제시한 단계별 계획과 같이 초기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질 때 주변국 관광객 유치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관광객별로 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상품과 지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해안 일부 개방 단계에서 바다낚시, 해수욕, 생태관광, 무동력레포츠 상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성, 통천, 원산, 함흥, 청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을 대상으로는 해안 일부 개방 단계에서 해수욕, 바다낚시, 수중레저 상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에 적합한 지역은 고성,

통천, 함흥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는 해안 일부 개방 단계에서 어촌체험이나 생태 관광, 수중레저, 무동력레포츠 상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적합한 지역은 통천, 원산, 함흥, 청진이다.

러시아인을 대상으로는 해안 일부 개방 단계에서 해수욕, 수중레저, 무동력레포츠를 제시할 수 있고 이에 적합한 지역은 고성, 통천, 원산이다.

미주·유럽인을 대상으로는 생태관광, 무동력레포츠, 수중레저, 어촌체험 등의 상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적합한 지역은 고성, 통천, 원산, 함흥, 청진이다.

동남아인을 대상으로는 해안 일부 개방 단계에서 생태관광, 수중 레저, 무동력레포츠를 제시할 수 있고 이에 적합한 지역은 고성, 통 천, 원산, 청진이다.

종합하면, 대규모 투자 전에는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지 우선순 위가 높게 나타난 고성, 통천, 원산 등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하다.

〈표 5-11〉 목표고객별 해양관광유형·상품

유형/대상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미주·유럽인	동남아인
해수욕	②	②		②		
바다낚시	❶	④				
어촌체험			⑤		⑤	
생태관광	②		③		②	③
수중레저		⑤	④	④	⑤	③
무동력레포츠	③		⑤	⑤	④	③
해양문화 (박물관)			③			③
크루즈	④	❶	❶	❶	❶	❶
마리나 (보트·요트)	④	③	②	③	②	②

7) 주민참여형 해양관광 개발

북한 지역 주민의 참여는 해양관광개발의 혜택을 북한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국제기구의 주도로 시작해서 인력양성·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5-12〉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구분	추진전략	추진과제	
I	1. 거점별 자연·사회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제도) 남북해양관광개발위원회 구성	(구성) 남북한 관계부처(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역할) 계획수립, 사업·홍보 추진, 의사결정 총괄기구
	6. 목표고객별 해양관광 상품 다양화	(사업) 해양관광 공동조사·연구 추진	거점별 해양관광자원 조사, 목표고객별 해양관광상품 개발 연구 등
		(홍보) 해양관광패뮈어 실시	목표고객별 패뮈어 추진
II	2. 해양관광 관련 건설·제조·서비스 산업 육성	(제도) 해양관광인프라·산업개발위원회 구성	* 남북해양관광개발위원회 산하 (구성) 남북한 관계부처(해수부,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등) (역할) 항만, 터미널, 마리나, 친수공간 개발 기금 집행 및 관련 기업 지원
	4. 해양관광 접근성·편의성 제고	(기금) 해양관광개발기금 조성	(구성) 남북협력기금, 관광개발진흥기금, ODA 신탁기금 등 (지원) 진출기업 유튜자, 북한주민 소액금융
		(기관) 해양관광인력개발센터 설립	(위치) 북한 원산 등 남북협업의 하에 결정 (기능) 해양관광 제조·서비스(수리·운영) 전문인력 양성
		(사업) 북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추진	음식·숙박·쇼핑(풍부한 노동력과 기술력 활용한 특산물 등) 소규모 창업 지원
III	3.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관광 원칙 견지	(제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발전위원회 구성	* 남북해양관광개발위원회 산하 (구성) 관계 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 (역할) 북한해양관광자원 보전·관리 정책자문
	5.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 북한주민 역량강화 지원	해양관광 분야 소상공인, 지역가이드 양성 등
	7. 주민참여형 해양관광 개발	(홍보) 북한 해양관광자원·지속가능관광가이드라인 개발	북한연안·해양의 관광자원 정보 구축 및 관리,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가이드라인 개발 등

음식·숙박·쇼핑(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 등 관광활동의 핵심요소이자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분야에 북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부처 담당자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추진전략을 종합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표 5-12>와 같다.

제 6 장

결 론

제1절 요약

이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북한 동해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남북한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고성, 통천, 원산, 함흥, 청진, 나진 등 북한 동해안의 6개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삼고 현황을 검토했다.

향후 북한의 개방·개혁의 모델로 예상되는 중국·베트남의 관광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해양관광개발 사례지로 저우산군도와 다낭을 검토했다. 두 사례 모두 해양경관자원과 배후시장 여건이 좋고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사회문화자원과의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저우산군도는 지역 주민의 소형관광기업화를 통한 참여가, 베트남은 관광 서비스 인력의 공급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신변보장, 제도개혁, 관리체계

등이 중요하고 안전관리와 환경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남북한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분야는 접근성과 재원마련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이 준비할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남북연계 상품 개발지원과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이 손꼽혔다.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정지원과 민관협의체 구성·민간투자 유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6개 연구 대상지의 개발 우선순위는 원산, 고성, 통천, 나진, 함흥, 청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목표고객으로 하는 해양관광유형도 조사했다. 해양관광유형 대부분에서 한국이 높게 나타났고 각국의 관광발전 수준과 관심사, 북한 동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매력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의 구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방향은 5가지로 제시했다. 핵심 거점 개발 후 연안·국제 연결, 연안 육역 개발 후 해상 관광 개발, 관광업과 1·2·3차 산업의 융복합, 북한 주민과의 혜택 공유, 남북한 연계관광이다. 비전은 고성-통천-원산-함흥-청진-나진을 잇는 동해 해양관광벨트 구축이다. 5년 내 북한 해안의 일부 개방, 5년 이후의 대규모 투자, 그 사이에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내륙과 연계할 것을 염두에 두고 1단계로는 연안 육역의 관광 개발, 2단계로는 연안 해역의 관광개발, 3단계로는 내륙 연계를 제시했다. 목표관광객은 5년 내 한국인을 시작으로 하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까지이다.

북한 동해 해양관광개발의 SWOT분석에 따른 추진전략은 7가지로 제시했다. 거점별 자연·사회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해양관광 관련 건설·제조·서비스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관광 원칙 견지, 해양관광 접근성·편의성 제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 목

표고객별 해양관광상품 다양화, 주민참여형 해양관광 개발이다.

추진전략을 종합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으로는 남북해양관광개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계획수립·의사결정 총괄 기구 마련, 그 산하의 해양관광인프라·산업개발위원회와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발전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확립이다. 사업으로는 해양관광 공동조사·연구와 목표고객별 해양관광 패키지 실시, 북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북한 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북한해양관광자원·지속가능관광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다. 이를 위해 해양관광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북한 진출기업 유투자 및 북한 주민 대상 소액금융사업을 실시하고 해양관광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제언

북한 동해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동해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요소로 신변보장과 제도개혁을 꼽았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었으므로 관광 부문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해양관광 개발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세스와 이를 관리할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으로 남북연계 상품 개발지원과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을 꼽았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관광 개발 관리체계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한 지역을 연계

한 해양관광지구 지정 시 이를 관리할 법제도나 기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 지정은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 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관리체계 외에 접근성과 재원마련이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정지원과 민관협의체 구성·민간 투자 유치 등이다. 교통수단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은 국가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해양관광 개발을 위한 민관의 협의체를 만들고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거점이 될 대상지로의 해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람선·크루즈선 운영을 위한 항만 개발과 선박 투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갈 필요가 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관리, 안전관리,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해양에서의 활동은 육상에 비해 환경·안전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해양관광 개발 시 필요한 환경·안전 관리 문제를 점검할 목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 바다낚시, 어촌체험, 수중레저,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활동의 환경규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북한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대북 비즈니스 교육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은 북한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남북한 관련 법제 비교분석도 필요하다.

〈표 6-1〉 주요 정책 제언

법·제도	조사·협약	민간 지원
신변보장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	해양관광자원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해양관광 환경·안전 협약	남북연계 상품 개발 지원 투자유치와 관리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원도, 「국제레저관광자유지대 조성 추진전략 수립 연구」, 2016
- 김민관,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협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남북 개발협력』 자료집(2018년 5월 15일).
- 김영봉 외,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2008.
- 김원배 외,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국토연구원, 2005.
-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북한투자전략팀, 「한반도 'CVIP'의 시대로」, 2018년 6월 12일.
- 외교부, 「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특구」, 2017.
- 원동욱·안병민,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2008.
- 유승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원산개발협력은행(가칭) 활용 방안 제언」, 삼성증권, 2018.
- 육동한 외, 「북강원도의 중심, 원산의 재조명」, 『정책메모』, 제700호, 강원연구원, 2018년 7월 24일.
- 윤인주·정유석,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 윤인주,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 응엔 민 프엉 응,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상준 외,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 국토연구원, 2012.
- 이응석,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역동요소는? 한국형 복합리조트(IR)의 성공 모델을 중심으로」, 『Deloitte Anjin Review』, 2014 APRIL NO.1
- 임강택,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KINU 온라인 시리즈』, CO-20, 2018년 5월 8일.

- 임호열·김준영,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5, No.22, 2015년 4월 10일
- 최금정, 「중국의 레저스포츠 관광실태 분석 및 유치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최성원, 「원산갈마비행장 현대화 사업」, 『유라시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제 2015-4호, 2015년 2월 15일.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국가정보」, 2016.
- 해양수산부,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 항만물류체계 기본 구상 연구」, 2018년 1월.
- 현대경제연구원,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VIP 리포트』, 725호, 2018.6.12.

〈해외 문헌〉

- CLIA, *Asia Cruise Trends 2018*, 2018.7.
- John Brohman, “New Directions in Tourism for Third World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3, No.1.
- Nguyen Hoang Ha, “Viet Nam’s marine industries : Current state and perspectives”, *The East Asian Seas Congress* 2015.
- Resolution No. 142/2016/QH13
- UNWTO,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16, March/April 2018.
- USAID, “Special Economic Zone Benchmarking and Policy Action Plan”, May 31, 2007.
- Suzanne Wilson et. al. “Factors for Success in Rural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40, Nov. 2001.
- 邮轮参考, 『2017-2018中国邮轮港口发展年度研究』, 2018.2.
- 舟山市旅游委员会, 舟山市旅游业发展“十三五”规划, 2016.8.

舟山市, 舟山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각년도.

〈인터넷 자료〉

APEC 2017, apecceosummit2017.com.vn (검색일 : 2018.10.23.)

베트남 외국인투자정보, fdi-vietnam.com (검색일 : 2018.10.23.)

Worldmap, pasarelapr.com (검색일 : 2018.10.24.)

sogwang.com (검색일: 2018.10.25.)

VOA, <https://www.voakorea.com> (검색일: 2018.10.25.)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 (검색일: 2018.10.23.)

<http://jeonsay.tistory.com> (검색일 : 2018.10.23.)

<https://www.leportsline.com/2-c8wn> (검색일: 2018.10.23.)

<https://www.libremercado.com> (검색일: 2018.10.22.)

오마이뉴스, <http://ojs7.ohmynews.com> (검색일: 2018.10.25.)

Research Gate, www.researchgate.net (검색일 : 2018.10.23.)

Vietnam Briefing, www.vietnam-briefing.com (검색일 : 2018.10.8.)

舟山网, www.zhoushan.cn (검색일 : 2018.10.23.)

NK경제, <http://www.nkeconomy.com> (검색일 : 2018.10.23.)

SBS 뉴스, <https://news.sbs.co.kr>) 검색일 : 2018.10.23.)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검색일: 2018.10.4.)

뉴스원, <http://news.zum.com> (검색일: 2018.10.22.)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 (검색일: 2018.10.22.)

베트남 관광청, vietnamtourism.gov.vn/english/ (검색일 : 2018.10.4.)

베트남 남동성 정부, www.lamdong.gov.vn (검색일 : 2018.10.4.)

- 베트남 다낭시 정부, danang.gov.vn (검색일 : 2018.10.24.)
- 베트남 투데이, www.vietnam2day.com (검색일 : 2018.10.8.)
-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8.10.21.)
-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검색일: 2018.10.23.)
- 북한통계, http://kosis.kr (검색일: 2018.10.23.)
- 세계여행관광협회, www.wttc.org (검색일: 2018.10.4.)
- 세계은행, 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18.10.23.)
-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 (검색일 : 2018.10.23.)
- 신짜오 베트남, www.chaovietnam.co.kr (검색일 : 2018.10.4.)
- 아주경제, www.ajunews.com (검색일: 2018.10.23.)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8.10.23.)
- 우리투어스, https://www.uritours.com (검색일: 2018.10.23.).
- 이코노미조선 네이버 포스트, m.post.naver.com/my.nhn?memberNo=35002835
(검색일 : 2018.10.24.)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 2018.10.24.)
- 저우산시여유위원회, xxgk.zhoushan.gov.cn (검색일: 2018.9.3.)
- 중국 국가해양국, www.soa.gov.cn (검색일: 2018.10.4.)
- 중국 문화관광부, www.mct.gov.cn (검색일 : 2018.10.3.)
- 중국관광연구원, www.ctaweb.org (검색일: 2018.10.4.)
- 중국정부(국무원), www.gov.cn (검색일 : 2018.10.3.)
- 중앙일보, https://news.join.com (검색일: 2018.10.23.)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news.kotra.or.kr (검색일 : 2018.10.8.)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검색일: 2018.10.23.)

통일한국, <http://unikorea21.com> (검색일: 2018.10.21.)

한겨레,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8.10.21.)

한국관광공사, <http://kto.visitkorea.or.kr> (검색일: 2018.10.22.)

한국교통연구원, <https://www.koti.re.kr> (검색일: 2018.10.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18.10.22.)

부록

북한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원의 통일 대비 해양수산 연구사업의 전문가 의견조사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문가 의견조사는 저희 원에서 수행 중인 「통일대비 북한 연안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향후 북한의 외래관광(한국인, 외국인) 시장에서 해양관광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북한의 대외개방 수준과 교통여건 상 내륙보다는 연안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존재하는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이 주목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합의하였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추세와 연구목적에 따라 북한 동해안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연구대상지역은 북한 측 계획(10개년계획, 특구 개발구) 및 한국 측 계획(함남도 신경계구상)에 반영된 거점입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를 요청받으신 전문가 여러분은 정치, 경제, 관광, 국토, 교통 등 제분야의 표적 집단으로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의견조사에 관심과 시간을 할애해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6

문의 및 회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 부연구위원	메일: mouthpiece@kmi.re.kr
	전화 : 061-797-4724	팩스: 061-797-4709

※ 해당 응답을 굵게 표시하거나 다른 색깔로 표시해주시시오.

SQ1	전문분야 (하나만)	① 관광	② 경제	③ 경영
		④ 국토	⑤ 교통	⑥ 기타: _____
SQ2	현재 근무기관	① 학계	② 기업	③ 연구기관
		④ 공공기관	⑤ 협회	⑥ 기타: _____

※ 아래 지도의 그림이나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 출력해보시거나 화면을 확대해주시시오.

북한에서 쓰고 있는 토·시·군 구역
1:5,000,000



함경남도



2. 주요 교통정보

1) 철도

출발지	도착지	거리	소요시간	비고
평양	나진	약 800km	약 16시간	평라선 - 함흥, 청진 등 경유
안변	갑호 (옛 북금강역)	약 100km	약 2시간	금강산청년선 - 동천, 고성 등 경유

2) 도로

출발지	도착지	거리	소요시간	비고
평양	원산	약 209km	약 2시간	평양-원산 고속도로
원산	고성	약 106km	약 1시간 30분	원산-금강산 고속도로
원산	함흥	약 126km	약 1시간 43분	1급도로*
함흥	청진	약 423km	약 6시간 11분	1급도로
청진	나진	약 103km	약 1시간 22분	1급도로

* '14년 기준, 고속도로(111km) 신설로 추정

3) 항만

지역	항만명	접안규모
고성	고성항(장전항)	3만톤급
원산	원산항	1만톤급
함흥	홍남항	6.8만톤급
청진	청진항	1.6만톤급
나진·선봉	나진항/선봉항	2만톤급

4) 항공

출발지	도착지	소요시간
평양	선덕공항 (함흥)	약 46분
평양	어랑공항 (청진 40km)	약 1시간 20분
평양	갈마공항 (원산)	약 40분

3. 해양관광 용어정의

- 1) 해양관광: 일상을 벗어난 바다 또는 바닷가 주위에서 바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광활동

목 적	일상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
공 간	해역 및 연안 인접 단위지역사회
행 태	직간접적으로 바다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

- 2) 공간 범위: 본 연구에서 해양관광은 marine and coastal tourism*을 포괄함

marine tourism	해변, 해상, 해중, 해저, 도서(島嶼)
coastal tourism	어촌 등 연안 인접 마을·도시

* EU는 도시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연안에서 10km안에 있는 지역의 관광으로 규정, 수상레저활동 및 육상 지원 서비스 포함

- 3) 유형 범위: '바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유형', '바다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유형'으로 구분

해양 의존형	휴양형	해수욕, 어촌체험
	유람형	(해상) 유람선, 크루즈, (해중) 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스포츠형	낚시, 보트, 오토, 서핑,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가악, 카누
해양 연관형	문화·전시 관람	박물관, 전시관, 사적지
	오락·위락 시설	유원지, 수족관, 테마파크
	음식·숙박 쇼핑	리조트, 민박, 레스토랑, 수산물(시장), 기념품

4. 주요분야 협력사업

No.	구분	사진	
(1)	해수욕장 (수질·안전 서비스, 편의시설)		
(2)	바다낚시 (낚시터 조성, 생태교육, 자원 방류·조성)		
(3)	무동력 레포츠 (카약, 카누, 서핑, 윈드서핑 체험)		
(4)	수중레저 (공간 개방, 체험교육, 시설조성)		
(5)	어촌체험 (교류마을, 공동브랜드 개발)		
(6)	크루즈 (노선, 인프라, 제도, 홍보, 상품 개발)		
(7)	마리나 (건설, 운영, 레저보트 임대, 국제교류)		
(8)	생태관광 (탐방로, 조망대, 가이드 양성, 교육센터)		
(9)	해양문화 (조사, 연구, DB, 콘텐츠 제작, 박물관)		

Q1. 북한 동해안에 해양관광 개발 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구분하여 아래 번호 기입란에 번호를 적어주시시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하단에 별도로 **없고**, 추가할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은 적어주시시오.

No.	구분	No.	구분
(1)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11)	교통수단 부족
(2)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거대 소비시장	(12)	편의시설 부족
(3)	북한의 환경보호 관련 규정	(13)	연계관광 부족
(4)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구 계획	(14)	계절적인 제약
(5)	북한의 관광개발 계획	(15)	타산업 개발과의 공간 갈등 이해관계 충돌
(6)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심 증대	(16)	북한 주민과의 단절 또는 소극적 참여
(7)	모험관광, 크루즈 등 관련 관광 수요 증가	(17)	북한 관련 부처 간 거버넌스(협력관계) 부족
(8)	외부에서 바라보는 신기성, 노스텔지어 등	(18)	자연환경 파괴 및 오염 발생
(9)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19)	외부인 소유권 확대 및 관광수익의 외부 유출
(10)	해양관광 전문인력 부족	(20)	북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강점		기회	
매우 강점	번호 기입 및 추가 작성	매우 기회	
약간 강점		약간 기회	
매우 약점		매우 위협	
약간 약점		약간 위협	
약점		위협	

해당 없음	번호 기입
-------	-------

Q2. 북한 동해안의 해양관광 개발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No.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금강산관광 등 기존사업을 확대하면서 동해안 지역의 관광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2)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 관광으로 확장성이 높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3)	동해안 연안의 북한 경제특구 개발구 계획과 연계한 인프라, 편의시설 등 지역 개발이 기대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4)	국내 해양관광 수요와 관심 증가를 반영하여 남북 관광 시장(대상,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5)	해변, 스포츠, 생태, 농어촌, 크루즈 등 세계적인 관광트렌드가 바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7)	추가 의견:					

Q3. 북한 동해안의 해양관광 개발에 적합한 기본 방향을 평가해주시시오.

No.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연안 육역(리조트, 어촌) 개발 후 해상 관광 개발	①	②	③	④	⑤
(2)	연안 해역(수상수중레저) 개발 후 육상 관광 개발	①	②	③	④	⑤
(3)	하드웨어(박물관, 마린나) 개발 후 소프트웨어 개발	①	②	③	④	⑤
(4)	소프트웨어(상품, 인력) 개발 후 하드웨어 개발	①	②	③	④	⑤
(5)	북한 주민과의 혜택 공유	①	②	③	④	⑤
(6)	북한 연안 도시 간 연결 및 국제적인 연결	①	②	③	④	⑤
(7)	관광업과 1,2,3차 산업 간의 융복합	①	②	③	④	⑤
(8)	추가 의견:					

Q4. 북한 동해안의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요소를 평가해주시시오.

No.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접근성 (교통수단)	①	②	③	④	⑤
(2)	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3)	위락시설	①	②	③	④	⑤
(4)	안전관리 (제도, 인원)	①	②	③	④	⑤
(5)	레저교육 (제도, 인원)	①	②	③	④	⑤
(6)	환경관리 (연안침식·수질·폐기물)	①	②	③	④	⑤
(7)	관광상품	①	②	③	④	⑤
(8)	관리체계 (조정기구, 홍보기구, 자문기구)	①	②	③	④	⑤
(9)	제도개혁 (질차 감소화)	①	②	③	④	⑤
(10)	신변보장	①	②	③	④	⑤
(11)	재원마련 (재정확보, 투자유치)	①	②	③	④	⑤
(12)	홍보·마케팅	①	②	③	④	⑤
(13)	추가의견:					

Q5. Q4문항의 보기 중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2개만 골라주십시오. ()

Q6. 해양관광 개발 시 우선순위가 높은 곳을 1~6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① 고성: _____ ② 통천: _____ ③ 원산: _____ ④ 함흥: _____ ⑤ 청진: _____ ⑥ 나진: _____

위와 같이
순위를 매긴
이유

Q7.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에 필요한 해양관광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적어주십시오. 보기 외에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보기

해수욕, 어촌체험,
낚시, 수중레저(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동력수상레저(요트, 보트), 무동력 수상레저(서핑, 카약, 카누),
생태관광, 해양치유(해수, 머드 등),
크루즈, 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 (해양)박물관, 수족관,
유람, 내륙(明山) 연계

(1)	고성	
(2)	통천	
(3)	원산	
(4)	함흥	
(5)	청진	
(6)	나진	

Q8. 북한 동해안 해양관광 개발의 추진 예상 시기를 평가해주시십시오.

	이번 정부 임기 내	다음 정부 임기 내	그 이후
(1) (해안 일부 개발) 해수욕, 낚시, 생태, 수상-수중레포츠	①	②	③
(2) (해안 대규모 투자) 크루즈, 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	①	②	③
(3) (연안 개발 및 연계) 어촌체험, 연안-내륙관광 연계	①	②	③

Q9. 북한 동해안 해양관광 분야별로 타당한 목표고객을 평가해주시시오.(복수응답가능)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주·유럽	동남아
(1) 해수욕	①	②	③	④	⑤	⑥
(2) 바다낚시	①	②	③	④	⑤	⑥
(3) 루돌러 레포츠 (가악, 카누, 서핑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수중레저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어촌체험	①	②	③	④	⑤	⑥
(6) 크루즈	①	②	③	④	⑤	⑥
(7) 마리나 (보트·요트 임대, 체험, 숙박)	①	②	③	④	⑤	⑥
(8) 생태관광 (습지, 철새, 물개, 물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9) 해양문화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10) 추가의견:						

Q10. 북한 동해안 해양관광 개발 시 한국이 준비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No.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	①	②	③	④	⑤
(2)	남북연계 상품 개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정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민간투자 유치	①	②	③	④	⑤
(5)	민관(전문가, 산업계, 정부) 협의체 구성	①	②	③	④	⑤
(6)	항만 개발계획 수립(크루즈항, 마리나, 어항 등)	①	②	③	④	⑤
(7)	해양관광 지원센터 설립(교육, 정보, 컨설팅 제공)	①	②	③	④	⑤
(8)	해양관광 관련 산업 지원(장비, 서비스, 도소매 등)	①	②	③	④	⑤
(9)	북한 내 해양관광 전문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10)	북한 지역주민 참여 지원(음식·숙박업, 가이드 등)	①	②	③	④	⑤
(11)	해양관광 분야 남북 민간교류(축제, 대회, 어촌교류 등)	①	②	③	④	⑤
(12)	공동 홍보 마케팅(국내외 프로모션)	①	②	③	④	⑤
(13)	세계관광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1-12 관련)	①	②	③	④	⑤
(14)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협력(1-12 관련)	①	②	③	④	⑤

Q11. 북한 동해안의 해양관광 개발 시 가장 필요한 자원조달 방안을 하나씩 골라주시시오.

Q11-1. 한국 내 자원조달 시 ()

- ① 북한 관련 공적자금(남북협력기금) ② 관광 관련 공적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
 ③ 민간자본 ④ 기타: _____

Q11-2. 국외 자원조달 시 ()

- ① 국제기구(UNWTO-STEP 등) ② 금융기구(세계은행 등)
 ③ ODA ④ 민간자본 ⑤ 기타: _____

Q12. 북한 동해안에 해양관광이 개발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기대하지 않음	별로 기대하지 않음	보통	약간 기대함	매우 기대함
(1) 연관 산업(교통·운수, 음식·숙박 등)의 발전	①	②	③	④	⑤
(2) 북한 내부의 제도 개혁과 대외 개방 견인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외래관광객 유치로 통한 외화수입 증가	①	②	③	④	⑤
(5)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대	①	②	③	④	⑤
(6) 북한의 대외신인도 제고	①	②	③	④	⑤
(7) 해양·연안 보전 및 관리 체계 발전	①	②	③	④	⑤

Q13. 북한 동해안에서 추가로 해양관광이 개발되어야 할 대상지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Q14. 북한 동해안 해양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감 사 합 니 다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업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연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더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회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연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인 쇄 | 2018년 11월 28일 인쇄

발 행 | 2018년 11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애드원플러스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

